Weekly 공감

NO.235
Korea.kr/gonggam
2013.12.2

기획특집

공공기관 손에 손잡고 협업… 국민행복 커진다

근로조건 차별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 함께해요"

대한민국 파이팅! 2017년 FIFA 'U-20 월드컵' 유치를 기원합니다

정부 협업이 창업 기회 늘린다

이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앱개발부문 최우수상팀 '에스유디' 팀장·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부 부처가 힘을 합해 지원한 덕택에 새로 개발한 앱 서비스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을 해석하다'(이하 화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제대로 알고 구매하게 되면 더 똑똑하게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다. '화해 서비스'는 제품의 안전도, 피부타입별 궁합, 기능성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팀은 올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서비스 기획을 하며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친 후 '화해'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대회 참가 준비를 했다. 이 대회는 여느 경진대회와는 조금 달랐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해 개최했다. 이 대회에선 총 4,840만원 규모의 상금을 제공하고 시상식 이후 최대 1년 간 창업지원이 이뤄진다. 우리 같은 창업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마침내 1개월여의 서류·작품발표·결선심사를 거쳐 앱개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기존의 아이디어 및 앱 경진대회보다 더욱 많은 창업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지원한 앱 개발 부문은 부처별로 지원이 풍성하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우리가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했다. 정부3.0 정책을 통해 '화해'와 같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사업화까지 창업과정을 일괄 지원해주며,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에서 앱기업관 전시부스 및 창업기업 참가를 지원한다. 만약 창업 공간을 희망하는 팀이 있다면 '앱 누림터'를 통해 창업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상한 앱을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년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창업오디션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 벤처 CEO 멘토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도 지원해준다.

예전에는 경진대회가 끝나면 시상금을 나눠 갖고 헤어지기 바빴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회처럼 정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으니 한 번의 앱 개발이 창업까지 수월하게 연결됐다.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 번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그런 바람이 정부 협업으로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전에는 경진대회가 끝나면 시상금을 나눠 갖고 헤어지기 바빴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회처럼 정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으니 한 번의 앱 개발이 창업까지 수월하게 연결됐다.

지난해 초 고등학교 동창생 세 명이 모여 '화해' 앱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때가 떠올랐다.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라는 주변의 시선들을 견디면서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서 10시간 넘게 사업계획서를 쓰곤 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 번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그런 바람이 정부 협업으로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7

32

44

52

기획특집

공공기관 협업… 1+1=3, 그 이상의 국민행복

21
일러스트 · 이우정

고농도 미세먼지

표지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해 광주 전시관에서 수술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지역발전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9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3호 〈세종시 2단계 이전 앞둔 6개 부처 공무원들의 '4인4색' 이주 전략〉 기사를 읽고

이승훈(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의 소감을 읽어 보니 이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적응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세종청사까지 가야 하는 민원인들도 생각해 청사 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ㄴ **답글** 메일링 시스템과 콜센터를 운영해 청사 이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대전 : 120, 대전시외 : 042-120)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소식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재목 서기관(안전행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 T/F팀)

233호 〈세종시엔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쉰다〉 기사를 읽고

김성엽(세종시 첫마을 한솔동)

원수산 · 전월산 둘레길을 조성했지만 막상 가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치된 나무, 정리되지 않은 길, 보이지 않는 이정표 등 주변 환경 정비가 미흡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주민이 즐겁고 안락하게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ㄴ **답글** 둘레길은 원래 2016년 이후 계획돼 있던 지역이라 필수적인 표지판과 안내판 등만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용객들이 급격히 늘어나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김용태 서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

234호 〈자유학기제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 기사를 읽고

장명화(경남 양산시 소주동)

다양한 체험활동, 스포츠,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크게 기대 됩니다. 보다 많은 학교에서 실행되어 여러 학생들이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ㄴ **답글** 교육이 입시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올해 42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에는 40개 학교를 추가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진하 사무관(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금융사기,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꼭 그렇습니다.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금융사기 이야기입니다. 지난호를 읽은 한 지인은 "OO은행을 사칭하면서 나한테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며 황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OO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치 아픈 금융사기, 그래도 해법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피해 신고부터 해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피싱까지 등장했다니 먼저 "금감원인데요" 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해야겠죠?

글 · 이창균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공공DB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참신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일반부 : 대학(원) 재학생 포함 일반 국민, 그룹 참가 가능(3명 이내)
▶기업부 : 기업(중소 ·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영리법인

응모주제 공공DB를 활용한 기업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공공DB를 활용해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

시상내역 ▶대상(2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점) : 표준협회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2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응모일정 12월 13일(금)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산업부 공공DB BI공모전 홈페이지 : g30bizidea.kr)

문의 산업부 공공DB BI공모전 사무국 ☎ 070-7826-6670

수요일 저녁풍경 가족사진 공모전

여성가족부는 '수요일 저녁풍경 천만가지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가족 누구나

응모주제 가족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
(예 : 우리 가족의 저녁상 차리기 모습, 딸바보 아빠, 아들바보 엄마의 모습 등)

시상내역 ▶대상(1명) : LG미니빔프로젝터
▶최우수상(2명) : 코베아 뉴와이드 빅돔 텐트
▶우수상(3명) : 휴롬 HH시리즈
※ 그 외 시상내역은 공모전 홈페이지(familyday.kr) 참조

응모일정 12월 10일(화)까지

제출방법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고해상도 촬영 사진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문의 공모전 운영팀 이메일(smjung@publicmarketing.co.kr)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5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9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4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6 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
7 아주 크고 우묵한 솥.
9 글을 쓰기 편리하게 만든 종이. 글자 수 계산이 편하도록 일정한 칸이 그려져 있죠.
10 효모나 세균 등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해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를 생기게 하는 작용. "김치와 간장 된장은 OO식품이다."
11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눈OO, 장미 한 OO.

세로 풀이

1 방을 여러 개로 작게 나누어서 한두 사람이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
2 더러운 옷이나 이불 등을 물에 빠는 일.
3 조선 전기 안견이 그린 그림.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거닐었다는 복사꽃 마을을 비단에 묘사했죠. 현재 일본 덴리대학에 소장.
5 감자와 더불어 옛날에는 구황작물, 지금은 건강식품인 이것은?
7 나무나 풀의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줄기.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
8 한배에서 난 세 마리의 강아지를 일컫는 순우리말.

〈위클리 공감〉 233호(11월18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연평도 **3** 농부가 **6** 조동사 **8** 산세 **10** 러시아 **11** 기대
세로 **1** 연말정산 **2** 도농 **4** 부조 **5** 가동 **7** 사각지대 **9** 세종시

〈위클리공감〉 233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구근형(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김은채**(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은영(강릉시 노암동 노가니길3) **주영선**(대전시 서구 청사서로 11)
권미영(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2길)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중국 스모그의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일대에 미세먼지 섞인 안개가 자욱하다.

국내·중국발 오염물질 동시 감축 나서

비산먼지 저감 등 대책 마련… 중국과 실현가능한 협력채널 확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10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앞당겨 실시하며 국내 오염원 저감 노력과 더불어 국외유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지역은 수도권과 중부권, 백령도 등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백령도측정소 분석 결과(2011년)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는 평균 44.5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비중은 전체의 30~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국외 영향과 더불어 대기 정체현상과 자동차, 난방 등 국내 오염원 증가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대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들어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19회로 전년(3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1월과 3월, 10월에는 평상시의 2~3배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올들어 중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1월과 10월 기록적인(993·407㎍/㎥)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중국 미래기후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2014년 2월) 이전인 지난 8월부터(수도권, 전국은 11월) 시험예보 형태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1단계 예보제에 이어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예보제도 법정시행일(2015년 1월) 이전인 2014년 5월(수도권, 전국은 8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예보제, 법정시행일에 앞서 내년 5월 시범 시행

이에 따라 2단계 예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보급되도록 2014년까지 36개소의 수동측정망을 조기 구축하고, 전국의 164개 자동측정망도 검사지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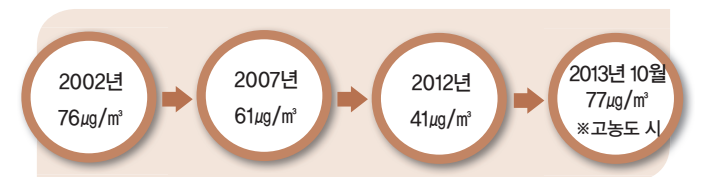
국내 오염량을 줄여 국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내 오염원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이미 2012년 말 강화 또는 신설한 사업장 배출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초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과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휘발유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2014년 CNG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

제2차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2015~2024)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동절기 불법소각, 비산먼지 등 특별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외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중·일 3국간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열린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올 12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협력포럼에서 '스모그 저감을 위한 3국간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장급 정책대화 등 실현가능한 협력채널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서울과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 비교

단위: ㎍/㎥·2013년

	서울		베이징
	고농도 시	평상시	
1월	124	55	최고 993
3월	141	46	—
10월	77	32	최고 407

자료·환경부

환경기술 협력에도 나선다.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을 진출시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수출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12월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한·중 민관 환경간담회 등에 참가해 ▶경유차 매연저감 개조기술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기술 ▶도시폐기물 저공해 소각기술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등 중국의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스모그 저감 프로젝트를 의제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것을 '동북아 협력구상'과도 연계·발전시킬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연합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약간 나쁨' 이상일 땐 외출시간 줄이세요

올 시범예보 중에도 미세먼지 농도 우려되면 언론에 관련 정보 제공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 및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을 높일 위험이 있다.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_{2.5}$)의 구성성분을 분석해 보면 2차 생성 물질인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이 높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 관련사망률도 증가해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네별 실시간 오염 '에어코리아'서 확인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형 미세먼지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에 예보팀을 마련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는 예보제 협업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및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PM_{10}의 첫 예보가 실시됐다. 올해 시범예보 중 미세먼지 '약간 나쁨' 이상의 농도 증가가 우려될 경우 언론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 결과는 내년 2월부터 기상청의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를 5단계로 구분한 뒤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

예보 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민감군영향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야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하는 사항도 권고된다. 오랜 시간 외출할 경우 에어코리아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해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

글·김혜민 기자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 자제
- 세수를 자주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야외 바비큐 등 자제

미세먼지(PM_{10})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개정 구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예측 농도(㎍/㎥·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요령	노약자	–	–	장시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부문별 생활수칙

부문	생활수칙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최소화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예보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 비치 •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 천식 등 호흡기 및 심폐질환 학생에게 특별 고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실외공기 차단 • 쉬는 시간마다 손 씻기
축산·농가 등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자료 : 환경부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전시관에서 세종시 미래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역간 재원의 배분이나 수도권에 대응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가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 중에서 –

"지자체 경계 허물면 주민행복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 격려사 "주민·지자체 중심 상향식 지역정책으로 전환"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 행사는 중앙정부와 17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다.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중앙과 지역,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지역발전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7일 개막식에 참석해 17개 시·도의 부스를 모두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틀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며 "먼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혁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지원을 펼쳐가겠다"며 "지자체간에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활용한다면 행정효율과 주민행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 자산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 및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정책존 등 3개 범주 27개 전시관서 다채로운 행사

이번 행사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하는 첫 행사였다.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주민행복 체감(Happiness)' '균등한 기회 제공(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Everywhere)' 등 정부가 지향하는 네 가지 지역발전정책 목표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정부는 신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과거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향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이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희망'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끔 기획됐다. 이에 따라 이 행사에는 각 시·도의 지역발전정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포함해 지역발전정책의 다채로운 실천방안들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타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등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

관람객들은 지역발전정책종합관(지역위원회)과 8개 부처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정책존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 지역존에서는 '창조지역 육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17개 지자체의 우수시책과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G

글·김혜민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탄력근무제 육아·학업 병행 가능한 직무 분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 나와… 유형·절차·정부 지원 등 상세히 서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루빨리 잘 정착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잘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기업용 매뉴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과 필요성, 유형, 도입 절차, 인사·노무관리, 지원제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와 직종 사례가 부록으로 소개돼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가정을 양립시키고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4퍼센트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점진적 퇴직’이 가장 많았으며(남자 58.7퍼센트, 여자 43퍼센트) ▶육아와 병행 ▶건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신규형’과 ‘전환형’ 두 가지다. 안내서는 신규형의 경우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 목적별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전환형의 도입 목적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이다.

흔히 시간선택제라 하면 하루 4~5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형태를 생각하기 쉬우나, 시간선택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탄력적인 근무제’다. 근무 패턴에 따라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요일제형(주 4일 이하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혼합형(주 5일 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단축 근무)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절차 유형별로 도입 절차가 다르다. 신규형의 경우 시간선택제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며, 조직 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전환형의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안내서는 도입 절차에 이어 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규정들을 ‘모집·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등의 단계별로 설명했다.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는 기업 규모, 공공·민간 부문, 신규형·전환형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규형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월 최대 60만원, 2014년부터 최대 80만원)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전환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절차

신규형

단계	내용
도입 필요성 분석	신규형 시간선택제 도입 필요성 확인 및 목적 명확화, 조직 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
시간선택제 제도설계	직무조사,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제도를 설계
인사·노무 관리방안 마련	채용, 보상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마련
노사공감대 형성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
운영과 관리	설계된 직무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업무에 배치하고 운영

전환형

단계	내용
전환형제도 설계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설계
노사공감대 형성	전환 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인	시간선택제 전환 수요를 조사, 전환 수요를 가진 대상자를 확인
직무(업무) 조정	전환 대상자의 직무(업무) 조정 방안,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수립
운영과 관리	대상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대체 인력을 채용·운영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조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구분	신규형		전환형	
	경력채용형	신규채용형	경력유지형	경력연장형
주요 대상	• 경력단절여성 • 제2의 직업을 희망하는 장년 퇴직자	• 일·학업 병행 근로자	• 일·학업 병행 재직근로자	• 퇴직을 앞둔 장년층근로자 • 퇴직자
정부지원 등 활용 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선취업·후진학 지원 연계 •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활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과 연계	• 근로시간 단축 지원·임금피크제 등과 연동

자료·고용노동부

겨울철 '맞춤형 재난관리' 펼친다

소방방재청, 취약계층 위한 재난취약시설 개선 등 4개 종합대책 마련

강원 동해소방서는 11월 14일 어린이집 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마흔한 가구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군 선학동길은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다. 기초 소방시설이 보급돼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마을이다. 소방서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 외딴 농어촌 지역은 화재 피해가 클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이후 선학동길에서 올해 3월 7일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이다. 주민들은 안에 있던 거주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훈련 때 배웠던 지침에 따라 행동해 자칫 발생했을지 모르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복지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상황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계층은 생계유지나 신체기능결함, 언어장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재난대처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4대 전략과 23개 과제를 마련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전복지종합대책의 4대 전략은 ▶재난취약시설 개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과 훈련문화 정착 ▶소방방재청 직원 중심 안전봉사활동 확산 등이다. 23개 과제는 기존 10개 과제에 새로 발굴한 13개 과제를 추가해 만들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을 개선한다. 재난취약계층은 주거시설이 낡고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부족해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동네 주변 주택가 등 서민밀집 위험지역의 불량 배수로와 위험 비탈면 등을 정비한다. 위험시설물 진단·설계·정비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진 '재능기부 봉사단'은 축대·옹벽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요자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이다.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이다. 소방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이 재난신고를 할 경우 통역 지원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소방관서에 조직된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은 여성 493명과 남성 9명 등 총 502명이다.

재난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도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사업이다. 재난 발생 등을 경험해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청각장애인 위해 인터넷방송서 수화 서비스도

그 밖에 소방방재청 인터넷 방송국인 NEMA TV에서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수화 서비스를 제공, 기존에 소외됐던 27만6천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습득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및 체험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령·지역별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과 훈련문화를 정착시킨다. 유치원·학교·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을 오가며 공감형 재난안전 이론·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소화전·소화기·심폐소생술 익히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119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쁜 주중보다는 학생들이 여유 있는 주말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교육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나눔과 배려의 안전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화재피해주민 주택 재건축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순직소방관 추모와 유가족 위로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부서 1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학생 등 1천만명과 취약지역 및 마을 1,049개소, 외국인학교 47개소, 주택지원 50여 가구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해 사무관은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요하게 실행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면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취약계층에도 안전 부문에서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종합대책 핵심내용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 보호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 서민밀집 위험지역 재난취약 요소 정비 • 화재 없는 마을 조성 등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 영세밀집 지역 화재예방 비상소화함 보급	• 재난피해경험자 재난심리 지원 • 안전복지 컨설팅, 폭염대책 훈련 확대 • 신고하기 편리한 119신고 서비스 추진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나눔·배려 공직자 안전봉사문화운동 확산**
• 학교, 교육원 등을 활용한 이론, 체험교육 • 학생 및 외국인 등 대상 훈련 강화 • 열린 재난상황실 운영	•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사업 추진 • 1부서 1봉사활동 등 추진 • 간담회 및 안전복지 원년 선포 이벤트 추진

자료·소방방재청

노숙인·쪽방주민 "올 겨울은 따뜻하겠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쪽방주민에 매달 연료비 지원

서울 중부소방서 회현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의 혈압을 점검하고 핫팩을 나눠주며 추위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동장군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자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이 동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2009~2010년 동절기 노숙인 사망자는 4명, 2010~2011년은 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연이은 폭설과 한파에도 응급대피시설 등이 설치돼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설치된 응급대피소는 누구나 방문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올 겨울도 추위가 일찍 찾아온다는 예보에 따라 노숙인·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1,500명의 거리 노숙인, 6천명의 쪽방 주민 등 2만여 명이 겨울 추위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사업이 강화된다. 만성 중증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 등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거리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상태를 진단한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을 안내한다. 추위를 피할 잠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병든 노숙인들을 치료하자는 것이다.

위기대응팀 구성해 상담·치료 서비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 등 노숙인이 밀집한 5곳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을 운영한다. 현장대응팀은 노숙인들이 밀집한 현장에서 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CT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과 및 내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순회 진료를 통해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역, 주요 공원 등 동절기 노숙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현장활동전담(아웃리치)팀을 구성·운영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현장활동전담팀은 기존 상담보호센터 인력과 노숙인 복지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노숙인시설 상담인력,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종교·시민단체·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현장을 야간 순회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동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활동범위를 확대한다. 거리 노숙인이 밀집한 지역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산재지역(강동·송파·서초·동대문구 등)으로까지 위기대응팀 지원을 확대했다.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주요 산재지역을 중심으로 2팀 22명의 인력이 동원돼 산재지역 노숙인을 지원한다.

노숙인뿐 아니라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쪽방 주민들에게 연료비를 긴급 지원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월 8만5천원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쪽방 시설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글·남형도 기자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육아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근거 마련… 빨래 등 간단한 가사일도 요청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던 직장인 이상미(가명·28) 씨는 앞으로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에게 양육뿐 아니라 아이의 빨래와 간단한 청소도 부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공해 온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보호와 양육 등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 교사를 파견한다.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된다.

"수요자 요구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자체에서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약계층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다. 교육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제공해 왔다.

정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추가했다. 2012년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15개 기관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돌봄만 제공하는 단일적인 서비스로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저하되고, 맞벌이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비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 맞벌이 우선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데서 나아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돌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박미숙 기자

철도 안전 최우선… 매뉴얼부터 개편

위기대응 매뉴얼 전면 보완·강화… 유형별 복구 교육·평가체제 도입

지난 8월 31일 대구역 KTX 충돌사고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주로 맡았던 안전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4대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해 인적 과실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재 5명뿐인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수도권·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한다. 철도공사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사 등이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호기를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나아가 노후·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퍼센트 수준이던 기존 안전예산을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용이 지연됐던 일부 차량의 ATP(열차 자동 보호장치)는 11월 말까지 사용을 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보완·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중앙포토

정부는 승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철도 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8월 19일부터 철도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 교수)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 등 전문가 26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해 부실 의혹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BTL(민간투자사업) 구간의 궤도 균열문제,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문제는 보수 조치가 마무리돼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레일체결구에 대해 검증단은 "품질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레일체결구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 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집계했다. 역사의 서비스 품질 항목에선 2010년에 비해 2.9점 높아졌지만 열차의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5.5점 하락)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호가 주말에 많은 혼잡을 빚는 데다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의 공급성·안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고장,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의 정시율, 열차 내 청결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G

글·이창균 기자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모텔과 차별화된 소형호텔도 허용… 개별관광 추세 반영

중국인 A(23·대학생)씨는 지난 여름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A씨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안심하고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해 줬다"며 "번화가인 강남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술과 관광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호텔은 많지만 주로 일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 의료관광객이 1~2주 이상 머물기 적합한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나처럼 혼자 찾는 의료관광객도 요양과 여행을 병행하기에 알맞은 숙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했던 의료관광객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부담 없이 한국을 찾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처럼 부가가치가 큰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크 호텔'처럼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때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의료관광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은 환자나 동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9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추게 했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화된 관광숙박 시설이 되도록 했다. G

글·이창균 기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서 일정 유치 실적을 가진 자(전년도 기준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환자 3천명, 서울 외 지역은 1천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
-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 유치업자의 사업추진 시 참여기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 객실 최소 20실, 객실당 면적 19평방미터, 취사시설 구비(필수), 풍속저해시설 제외한 휴양적합시설 구비(선택)
- 내국인 숙박객은 (연간 기준) 호텔 객실 총 숙박 가능 인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기관과 별개 시설로 분리돼야 함(단 분리돼야 하는 정도, 분리돼야 하는 시설 범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

- 객실 수 제한 현행 30실 이상 →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완화(관광호텔, 가족호텔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함)
- 관광숙박시설로 차별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 부대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 면적 합계는 건축 연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함(공중위생관리법상 일명 '모텔'은 부대시설 없이도 영업 가능)

- 현행 폭 12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 '8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으로 변경
- 이는 소형호텔, 호스텔에 대한 완화로 관광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은 현행 도로연접의무 적용
- 현재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는 불가하나, 관광숙박업은 도로연접기준 준수, 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중(관광진흥법)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형호텔업 신설과 소형호텔·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

공감포토가 소개하는 사진을 감상하며, 사진 속 다른 부분 3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다른그림찾기" 라는 제목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8일까지
webmaster@korea.kr 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3만원 / 10명)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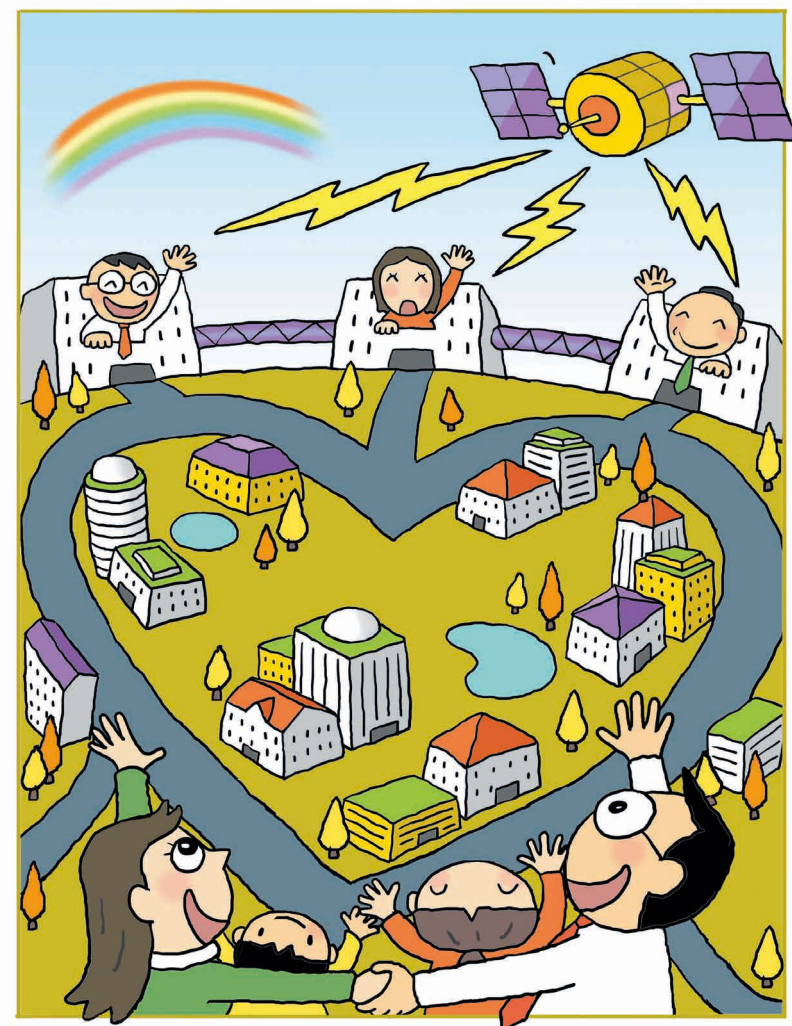
더 많은 사진을 감상하시려면 공감포토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photo.korea.kr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Wow, Rock!'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뮤지션 멘토로부터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마련된 아동·청소년·동반가족을 위한 학교 밖 토요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벤트 7회 당첨자 발표

한춘분 010-72**-79** 오종임 010-71**-92** 조영숙 010-51**-36** 전순애 010-32**-81** 최명석 010-22**-39**
원영태 010-65**-23** 이진영 010-28**-57** 이순민 010-23**-47** 이선주 010-44**-85** 박현진 010-62**-60**

'공공기관끼리 공유와 협력' 1+1=3, 그 이상의 국민행복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정부는 국민·현장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협업의 기본 목표입니다. 부처간 협업이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지원하며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 만족도와 정부 생산성을 높여 공동 목표인 국민행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낭비 없앤 부처 협업… 열매는 국민에게

정부지원 효율성 높아져 국민편익 증대·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

만약 유튜브가 내부 직원에게만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했다면,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가 몇몇 전문가를 고용해 질문에 답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저자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개방형 협업)'에 주목하며, 유튜브와 지식iN 서비스를 그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가 지칭하는 개방형 협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다수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빛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개방과 참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업은 기업경영, 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에서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협업이 기업의 운명을 바꾼 경우도 있다. 협업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락과 급성장이 교차한 사례가 바로 소니와 애플이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며 혁신기업으로 부상한 애플이 2001년 아이팟 사업에 착수, 아이튠스를 결합해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하자 비슷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워크맨과 소니뮤직)를 보유하고 있던 소니는 2003년 그와 유사한 협력 프로젝트 '커넥트(connect)'를 구상했다. 그러나 2004년 출시된 커넥트는 참담한 실패작이 됐고, 이후 애플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소니는 혁신기업의 대열에서 뒤처졌다.

당시 소니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하워드 스트링거는 "사일로(silo)가 너무 많아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서 사일로란 조직의 각 부서들이 사일로처럼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공부문 역시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정부 규모가 커지며 정부 조직이 1998년 '37개 부처 740개 과'에서 '43개 부처 1,664개 과(2012년 말 기준)'로 늘어나 부처간 칸막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업은 더욱더 절실하다.

부처별 중복사업 증가로 협업은 필요가 아닌 필수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비슷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올해 14개 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00여 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물론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 등이 다르겠지만, 1천여 개가 넘는 수준이면 중복사업도 많을 수밖에 없다.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사업의 경우도 28개 부처가 1천여 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12개 부처에서 59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부의 부처간 협업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협업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 목적과 대상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중복 투자인지 지원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업 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이 함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살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가 개방, 공유, 소통, 그리고 협력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 '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에 따른 10대 과제 중 하나가 협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찾은 155개 과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정책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130개 과제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력과제'다. 부처간 다소 이견이 있는 '통합 ODA 추진' 등 15개 과제는 '조정과제'로 선정해 국무조정실이 국민행복이란 관점에서 조정을 맡고 있다. 나머지 10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장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과제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43개 사업(전체 과제의 약 28퍼센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1월 말까지 30개 가까운 과제가 성공적인 협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민간부문에서 협업이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의 기반이 되어주듯 부처간 협업의 결과는 국민편익 증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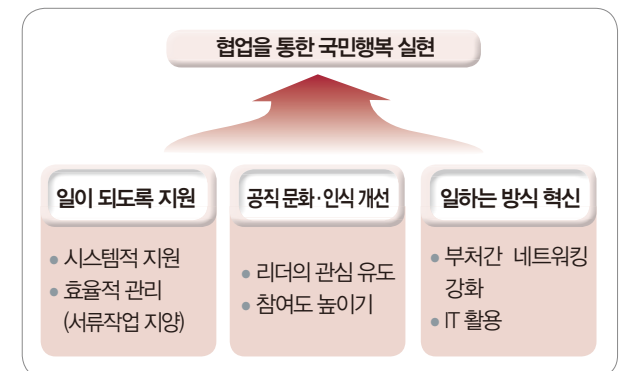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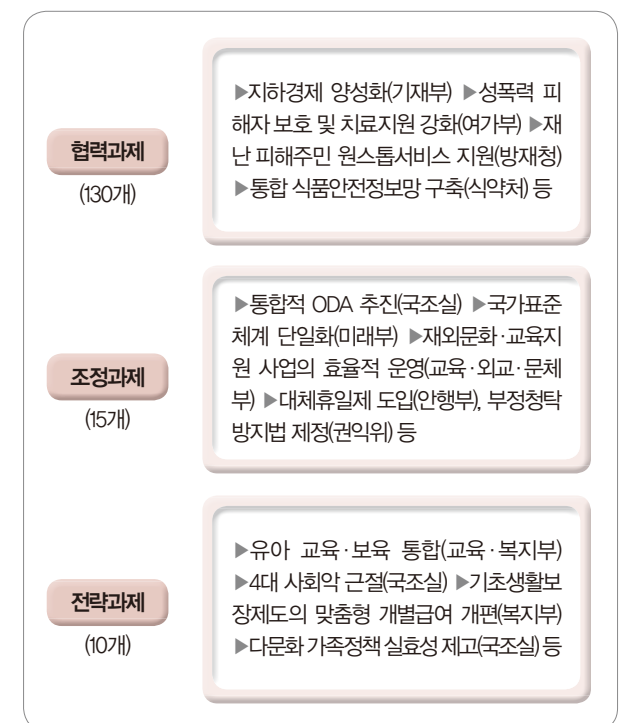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도입한 '정부조달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조원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등 '대학생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율이 2011년 18.4퍼센트에서 올해 21퍼센트로 상승했다. 기관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161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집단지성이 각광받는 시대, 공공기관들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부처간 협업의 비전과 추진 방향

155개 협업과제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전력공사

어지럽던 공중선 '말끔' 온 동네가 '깔끔'

바닥까지 늘어졌던 전깃줄에 누전 위험 등 주민들 불안감도 해소

오성민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김정근 동장(왼쪽)과 동네 주민 강필순 씨가 정비된 공중선을 둘러보고 있다.

강필순(65) 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40년 넘게 살았다. 상도동 토박이인 그는 동네에 대한 애착이 깊다. 2년 전부터 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강 씨는 "동네가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다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곳이라 이 지역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강 씨에게 최근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골칫덩어리였던 '공중선 난립'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성대시장 일대 전봇대에는 공중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공중선은 전력선과 통신선, 케이블TV선 등 전주에 걸린 케이블을 일컫는 용어다.

"선들이 제멋대로 엉켜서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전주를 뒤덮고 선들이 너덜너덜 걸려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상도4동 김정근(52) 동장도 강 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 동장은 "전봇대를 중심으로 전선들이 하도 뒤엉켜 격자무늬의 창문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 사업 진행 등 시너지 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지러웠죠. 칡덩굴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전된 적은 없지만 선이 얽혀 있으니까 주민들도 불안해 했습니다. 전선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전선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낙뢰라도 치면 얼마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고요. 또 근처에 작은 가게들이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죠."

11월 25일 기자가 성대시장을 찾았을 때는 공중선이 여기저기 뒤엉킨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성대시장 초입부터 성대골 어린이도서관까지 430미터에 이르는 인근 일대를 '공중선 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전주 위에 뒤엉켜 있던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좋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성대시장 일대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초에 마무리됐다. 강 씨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한다"면서 "동네 인물이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부부처·지자체·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해당 사업자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중선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 왔다. 이 협의회에서는 연간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심의 및 공중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공중선 정비 협업 어떻게 했나

지자체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지자체·전파관리소·한전·통신·CATV 사업자)
1단계(2013~2017) : 20개 대도시, 2단계(2018~2022) : 전국으로 확대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단
(한전·통신·CATV 사업자)
1단계(2013~2017) : 20개 대도시, 2단계(2018~2022) : 전국으로 확대

- 지자체와 정비사업자 간 '공중선 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2013년 1월)'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중

미래부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업 총괄
산업부 전력선의 지중화 확대방안 마련 및 전력선 정비 지원
국토부 공중선의 지중화 유도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방안 마련
지자체 2013년도 공중선 실태조사, 정비결과 점검·확인 등
정비사업자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하여 공중선 정비작업

자료·관계부처 합동

뒤엉킨 공중선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서울을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에서 난립한 공중선을 발견하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588-2498

또한 서울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 지역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정비 수요조사 및 정비실적 등을 확인 감독해 왔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뿐 아니라 도로관리청, 한국전력, 지역 통신·케이블TV사업자 등도 참여했다.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재 사무관은 "주관부서인 미래부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등 각각의 부처들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G

글·김혜민 기자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기획재정부 + LH

"원룸 반값에 오피스텔 전세 얻었어요"

LH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당첨… 매달 10만원 이상 절감

천만규 기자

부처 협업으로 지원한 대학생 전세임대에 당첨된 한나래(가명)씨의 오피스텔.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나래(21·가명) 씨는 지난해 생애 첫 자취생활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원룸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설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기 이천 출신인 한 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며 고생이 시작됐다. 첫 학기에는 남양주에 있는 이모 집에서 통학했다. 평소 살가운 친척이지만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가족과 달리 불편했다. 돈이 들어도 어쩔 수 없겠다 싶어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홍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

마음은 편했지만 이번엔 돈이 문제였다. 방세로만 월 45만원이 들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학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릴 정도로 거리도 멀었다. 매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다음 부랴부랴 카페로 달려가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되기 십상이었죠." 3남매 중 장녀인 데다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한 처지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귀띔해 줬다.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 집을 지원해 준대." 이후로 한 씨는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시행자인 LH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올 2월 대학생 전세임대 주거지원 모집공고에 바로 지원했고 당첨됐다. "경쟁률이 셌나 봐요. 친구 두 명도 같이 지원했는데 저만 됐어요."

그는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지하철 역에서 5분 거리, 학교는 10분 거리 등 최적의 주거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비실 옆 입구에서 보안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최신식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16.5평방미터 남짓한 아기자기한 공간이 드러났다.

이 집은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및 지방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가 힘을 모은 결과다.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 외 타 시·군 출신 재학생이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50만원)과 장애인(소득 100퍼센트 이하) 등이다.

대학생 1인당 월평균 주거비용

기존

-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 34만원 수준(2인 1실)
- **대학가 월세** 보증금 500만~1천만원, 월 임대료 40만~50만원 수준 (서울)

→

개선 (10만원 이상 절감)

비용	구분
24만원(2인 1실)	사립대 공공기숙사
14만원(2인 1실)	국립대 BTL기숙사
7만~17만원, 보증금 100만~200만원(1인 1실)	전세임대
4만~9만원, 보증금 100만~200만원(2인 1실)	전세임대
15만원(2인 1실)	학생종합복지센터

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 대학생 주거지원 실적

구분	수용인원(명)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753
국립대 BTL 기숙사	2,050
국립대 재정기숙사	976
사립대 재정기숙사	5,121
사립대 공공기숙사	5,313
학생종합복지센터	1,000
합계	**18,213**

"2017년엔 전체 대학생 40만명 주거지원"

"학교가 가까운 데다 안전해서 만족했는데 덤으로 방도 매우 깨끗하고 좋으니까 마치 돈을 번 기분이더라고요"라며 웃었다.

한 씨는 현재 전세자금 7천만원의 이자 형태로 매달 11만5천원을 LH에 납부하고 있다. 이 돈이 한 씨가 감당하는 방값이다. 따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6만~7만원으로 한달 20만원 정도에 주거비가 해결된 것이다.

결국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처와 기관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결정했다.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 연간 1만6천여 명을 추가 지원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퍼센트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맡았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설 지원을 주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 및 행복(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발이 맞기 시작하자 결과물은 더욱 풍성해졌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서기관은 "부처간 협업으로 효율과 질적 조건이 훨씬 높아졌다"며 "앞으로 대학생 주거지원율은 점점 늘어갈 예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대학생 수는 29만명인데, 2017년까지 40만명으로 늘려간다"고 말했다. G

글·박지현 기자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공고 lh.or.kr

소방방재청 + 11개 중앙부처 + 한국전력공사 + 국민연금공단 등

오상민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기 이천시 신둔면의 수해복구 현장.

재난 주민들 일손 덜어준 '원스톱 지원'

세제 지원·전기료 감면 등 7개 분야 간접지원 한 번의 피해신고로 일괄 처리

지난 7월 22일 단시간 집중호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기 이천시 신둔면엔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석리 산자락엔 폭우로 인해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온 커다란 바위가 나뒹굴고 있었고, 뿌리째 뽑혀진 나무도 보였다.

최근 이곳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만난 지석리 강진우(60) 이장은 "평생 이천에서 살았지만, 지난 여름같은 큰 폭우는 처음이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 농가들이 수해 복구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번거롭게 피해 신고를 하러 다니는 수고 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한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3명, 이재민 77세대 200명, 재산 피해 규모만 250억원에 달한 이천시는 정부에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역이었다.

피해 주민이 피해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이다.

예전에는 피해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하는 피해 신고와 별도로 세무서 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군·구(읍·면·동) 1회 방문 피해 신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피해 규모를 신고하면 읍·면사무소는 해당 시청 직원과 함께 주민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실사를 나간다. 이후 읍·면사무소와 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이 실사 내용을 종합해 각각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속해 피해 규모를 입력한다. 중앙의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간접지원을 하는 관계기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올려진 피해 신청 내용을 파악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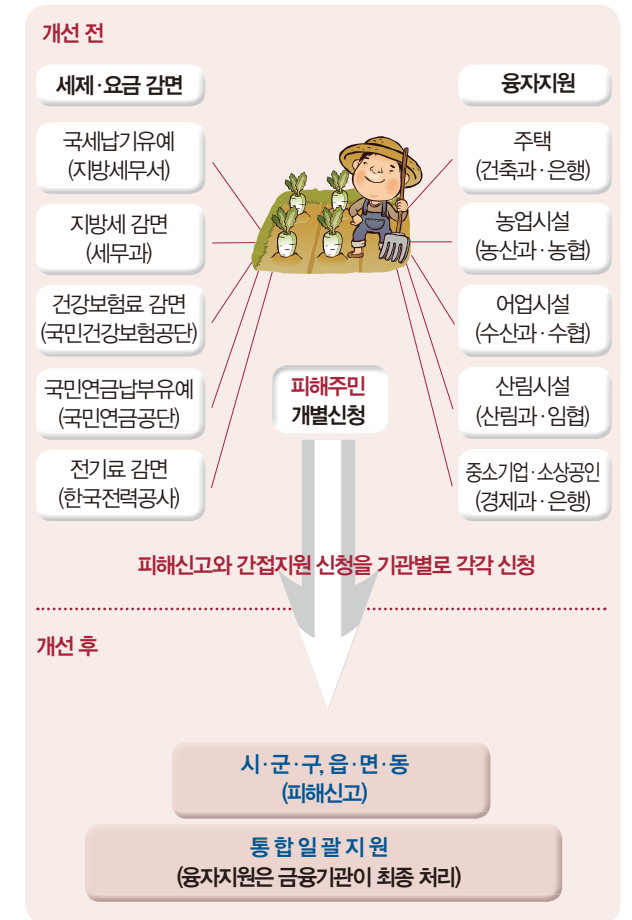
이천시 재난안전관리과 남오철 과장은 "과거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농가가 생기면 주민들이 시청의 각 부서를 돌며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 바람에 민원이 폭주했는데, 올해는 홍수로 인한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행해 본 결과 구비서류 발급이나 신청 접수 민원이 해소돼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됐다"고 말했다.

기관별 구비서류·지원대상 범위도 개선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필수다.

올해 초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개선과제와 추진해야 할 일들을 협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여름 피해 발생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간접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함에 따른 이견 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중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별 구비서류나 지원 대상 범위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내용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박종빈 사무관은 "2006년 직접지원인 재난지원금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 직접지원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방치되다시피했던 간접지원 체계를 올해 관계부처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협의를 통해 구축하고 관계법령과 기준 등을 정비함은 물론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까지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지원과 감면, 금융지원·유예 등과 전기료 감면 등 7개 분야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경기·강원 등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총 1만1,011세대가 세제·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았다.

글·박미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국방부

김현동 기자

경기 김포시 통진고 학생들이 무용분야 예술강사 우선영 씨(오른쪽 세번째)와 안무를 맞춰보고 있다.

아이들에겐 무용 병사들에겐 학점을!

부처 협업으로 예술강사 파견·군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

"어이! 얼쑤!"

학생들이 동작과 장단에 맞춰 만들어내는 추임새에 저절로 흥이 돋는다. 서툴지만 그만큼 역동적이었다. 11월 26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통진중학교 나루관 다목적실에서는 한바탕 신명나는 춤사위가 펼쳐졌다. 한 학생이 실수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됐어, 좋았어. 완벽해!" 구석에서 연습하던 다른 학생은 만족한 듯 외치며 미소를 띠었다.

이들은 통진중·고교 학생으로 무용 동아리 '우쌤단'의 일원이다. 중2부터 고2까지 32명의 학생들이 무용이 좋아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우쌤단은 통진중에서 한국창작무용을 가르치는 예술강사 우선영(47) 씨와 아이들을 지칭한다. '우쌤'은 우 선생님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요즘에는 12월에 있을 교내 예술제 준비에 한창이다.

학교·교사·학생 모두 신명나는 예술교육

"아이들이 색동저고리 소품이 필요하다며 연구하더니 옷에 빨간 테이프를 붙여보는 등 여러 의견을 내요.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할 때도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에 그저 흐뭇하죠."

우 강사는 얼마 전 제자들로부터 "선생님 칠순잔치 때 요리해 드리고, 장례 때는 공연을 오겠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는 친자식만큼이나 가까운 아이들이다. 종종 학부모들에게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다. 통진중은 2006년부터 무용을 정규수업의 하나로 편성했다. 1주 8시간의 무용수업에 재미를 붙인 아이들은 인근 통진고에 진학해서도 중·고교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통진고 2학년 손현욱(17) 군은 "중학생이 돼 처음 무용수업을 들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큰 재미를 느껴 5년째 (무용을) 하고 있다"며 "졸업 후에 진학해도 동아리 멤버로 계속 인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생인 손 군은 전교 석차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모범생이다. 손 군처럼 무용을 전공하지 않아도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이 대다수다.

예술과 교육이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협업의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의 하나로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무용·국악·공예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강사들을 초빙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지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시·도별로 강사들을 배치한다. 때로는 각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사별 교육시간을 재배분하거나 추가 지원에 나선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각 학교를 찾아 중간평가를 한다.

예술교육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통진중 김성기 담당교사(41)는 "예술교육은 이전까지 엘리트 양성용이라는 제한적인 목적만을 가졌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원격강좌 참여 대학 올해 99곳으로 늘어

특히 통진중·고교처럼 외곽에 위치한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예술교육은 이를 보완하는 한편 창의력을 계발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컨대 우쌤단은 지역 내 조강거리를 모티브로 창작극을 만들어 공연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이 자연스레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에도 힘이 된다.

육군 50사단

육군 50사단 영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한 병사가 원격학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예도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업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본부를 통해 해마다 전국 각 부대의 여건을 파악한다. 이어 교육부를 통해 일선 국·공·사립대학들에 원격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협조하는 대학들이 사이버강좌를 연다. 병사들은 영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동영상 강의 등으로 원격학습을 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원격강좌 참여 대학 수도 2007년 6곳에서 올해 99곳으로 대폭 늘었을 만큼 반응이 좋다. 한 학기에 3학점, 1년이면 6학점을 딸 수 있다. 육군 50사단에는 얼마 전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수업 듣는다고 20만원을 부쳐달라는데, 군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혹시 아들이 사고 친 거 아닌가요?"

이 학부모는 전후 사정을 듣고서야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육군 50사단 김성배 중령은 "예전에는 군대 간다면 '몸 건강히 다녀와라'는 인사말이 끝이었는데 이제 몸 건강은 기본이고 '뭔가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하고 오라'고 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군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중령은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기관과 접촉하기 어려운데 국방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업해 이런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G

글·이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유료 웹툰 서비스' 성공 이끈 정부 협업

레진코믹스, 매달 20~30퍼센트 성장… 문체부·미래부 등 맞춤 지원

지미연 기자

정부 지원을 통해 유료 웹툰 서비스를 안착시킨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권정혁 최고기술책임자(왼쪽)와 이성업 이사.

'레진코믹스'는 첫달 매출 1억원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 6월 7일 안드로이드 앱을, 8월 17일 아이폰 앱을 출시해 현재까지 5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구글플레이 만화부문과 아이폰 서적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60만명을 넘었다. 첫달 매출 1억원을 올린 후 매달 20~30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유료 웹툰 서비스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웹툰은 유료 모델로 정착한 영화·음악과 달리 아직까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들의 수익이 열악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레진코믹스는 콘텐츠 수익 자체를 작가들과 나누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웹툰 유료화를 결정했다. 기존 대다수 포털사이트가 월급제로 작가들을 운영하던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유료화를 위해 레진코믹스는 '코인'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일정 기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빨리 보고 싶으면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유료화 모델이다.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레진코믹스에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들 수입도 늘고 있다. 한 작가는 만화를 연재한 지 10일 만에 5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그것도 신인작가였다. 레진코믹스 전체 사용자 중에 유료 사용자 비율은 현재 5.2퍼센트에 달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성업 이사는 레진코믹스가 성장한 배경 중 하나로 정부부처의 합동 지원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신인작가 발굴 매니지먼트 사업이 있었어요. 새로운 웹툰 창작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공모에 도전해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공모를 통해 레진코믹스에 5천만원의 지원금, 해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사무공간 등을 함께 지원했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 이은 글로벌 성장 컨설팅 큰 도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국내 창업·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겪는 법률·회계·특허·마케팅 관련 어려움을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돕는 것이다. 레진코믹스는 장차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레진코믹스를 지원했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네트워크'다.

"같이 뽑혔던 팀 30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런던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녀왔는데 해외투자자도 많이 만나고 투자 제의도 받았죠. 사업을 소개하자 해외에서도 공감하는 것을 보고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권정혁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글로벌 K-스타트업 지원으로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업 이사는 각 정부부처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지원한 덕분에 사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1억원으로 많은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가들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권정혁 CTO는 "시작 단계를 벗어나 성장 단계에 들어선 지금도 정부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에서 그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해외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나 컨설팅을 지원해 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지원받은 정부 사업

지원사업명	사업주체	지원 내용
2013년 신인작가발굴 매니지먼트(중소미디어 등)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금 1억원
2013년 만화 글로벌 장편, 중단편 및 만화매체용 연재만화 창작지원		지원금 약 5천만원
글로벌 운영기반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인프라 지원
2013년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무공간 지원
글로벌 K-스타트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5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 및 상금 수혜
2013년도 글로벌 창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자료: 레진엔터테인먼트

여러 부처가 협력해 창업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공진호 사무관은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다. 공 사무관은 "예컨대 웹툰 사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다느니 인터넷 분야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어디서 누가 지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으니 갈등의 여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부처의 장점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아이디어 쪽을, 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공 사무관은 이어 "특히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G

글·남형도 기자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묻지마 창업 그만! 상권분석 해드려요

기초DB 1천만건 공유 통해 '서민지원 플랫폼 서비스' 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중소기업청과 공유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민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상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울산 북구 명촌동 상가 지역.

올해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정식집을 연 용환섭(52) 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받고 창업했다.

용 씨 부부는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국수전문점으로 업종 변경을 결정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문의하고자 지난 4월 춘천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상담을 맡았던 백순임 전문위원은 센터를 찾아온 용 씨에게 상세한 임대시세 통계를 비롯해 메뉴 선정, 유동 인구와 업종 분석, 경쟁점포 분석을 해 주었다.

충남 당진시에서 홍탁음식점을 경영하는 이완희(57) 씨도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 서산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생계형 점포로 매출이 부진해 방법을 찾던 이 씨는 처음에는 단순 운영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센터와의 기본상담을 통해 자금 투자만으로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합진단과 컨설팅을 받았다. 5개월 여에 걸친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센터 상담사와 점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업종 전환 후 매출 및 순익증가, 점포인지도 개선 등 경영 활성화를 달성했다.

위에 소개된 두 건 모두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은 사례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300명의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점포에 대한 입지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업종별로 점포와 주변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와 가구, 업종별 업소 수 등 상권 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말에는 신규 빅데이터 서비스도 제공

하지만 기초 데이터베이스(DB)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올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체제를 가동했다.

중기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권정보 기초 DB를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간정보 기반 서민지원 플랫폼'에 제공하고, 국토부는 중기청에 임대시세 등의 DB를 제공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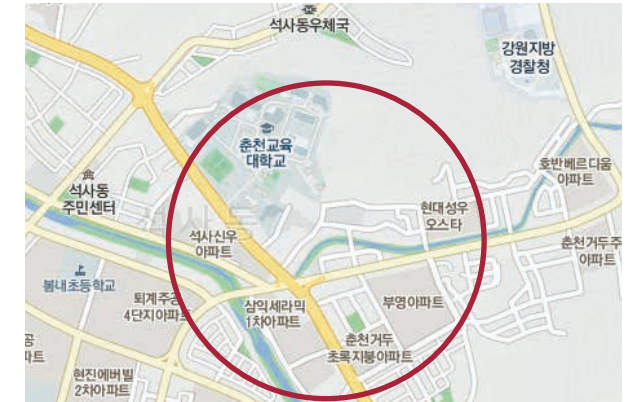
국토부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서비스하게 될 '서민지원 플랫폼'을 서비스 한다. 도로명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 등의 '고품질 지도' 기반 위에 서민 관심지점에 대한 DB를 구축해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참여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차 협업으로 국토부는 중기청에 건축물대장 DB 약 700만 건과 토지특성도 약 16만 건, 임대시세 조사자료 3만 건을 제공했다. 이에 중기청은 약 280만 건에 달하는 업종과 업소명, 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소상공인 상가업소 DB를 국토부에 제공해 기초DB 공유를 끝마쳤다.

국토부가 제공한 기초DB 중 임대시세와 관련한 정보는 이미 상권정보 시스템에 반영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두 부처간 원활한 협업의 성과는 시스템의 중복 개발을 방지해 예산 절감을 이뤘다는 점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앞으로 3년 기준으로 기초DB 조사비용 30억 원(연 10억 원)과 지도 개발 및 이용료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소상공인 상권분석 협업 어떻게 했나

자료·중소기업청

핵심상권은 어디일까?

강원 춘천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용환섭 씨의 상권 분석에 활용했던 지도다. 상권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핵심상권으로 표시된 지역.

중기청은 국토부와의 협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 주소,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기초DB를 확보해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 인터넷포털 업체인 네이버, 다음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용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이용률을 5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극대화했다. G 글·박미숙 기자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sg.seda.or.kr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부처간 협업은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민규 기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정부가 합심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성공한 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협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협업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심 실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본다면,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업무 관할에 따라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없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또는 국민만족을 위해서는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개별 부처나 기관의 논리, 입장을 떠나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협업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협업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강조할 만큼 부처간 협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업행정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연계형 정부(joined-up gov't)’를 구축하고 미국은 ‘열린 정부(open gov't)’를 정책기조로 삼는 등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협업을 촉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협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각 부처에 협업 경험이 쌓이면 공직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 협업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이 꼭 필요로 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때에 긁어줄 때 협업이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한 현안과제는 발벗고 나서서 이견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정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근래에 있었던 조정 사례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연비관리제도를 중복 규제하여 자동차업계에 혼선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비측정 방법 및 절차, 기준 등을 통일하고 측정 결과를 공유키로 하여 중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협업 성과는.

“155개 협업과제 가운데 대략 27개 과제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정부조달 소기업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처간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었으며, 부동산정보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입신고 업무 처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협업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가 있을런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부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협업과제를 추진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고와 행태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중요하게 여긴 협업의 원칙 혹은 기준이 있다면.

“협업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부처간 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고 충돌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처간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혹 일부 부처에서 통상적인 업무 진행상 단순 협조를 협업실적으로 과장하거나 형식적인 협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협업’에 매몰되면 오히려 공직 내부에 냉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성과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9개월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내년에 부처간 협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성과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지요.

“협업은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협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체감협업 달성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3개 분야(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국민안전)의 2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이 안 되어 국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민원업무가 많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민원 동향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협업의 결과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협업과 함께할 때 국민에게 협업의 성과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협업은 통합과 융합의 시대정신 구현

국민들의 행복한 삶 위한 부처 칸막이 제거·협업 지속해야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현장 중심의 정책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목표와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운영원리로 정부3.0을 내놓았다. 즉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름으로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주창한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상통한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155개 협업과제(조정과제 15, 협력과제 130, 전략과제 10)를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벽, 정부 칸막이(government silo)는 왜 생기는 걸까? 200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조직 관리자의 태도나 다른 부서에 대한 무관심이다. 조직권한이 막강한 부서와 아닌 부서간의 괴리나 물리적인 거리도 꼽힌다. 조직 내의 고립된 사고방식과 개인성과를 기초로 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점도 지적된다. 협업을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다.

"조직환경에서 협업은 주목해야 할 행정관리"

정부 칸막이가 심할수록 벌어지는 결과들은 불보듯 뻔해진다. 부서(처)간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막히며 정책목표에 대한 부처간의 차이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처 칸막이 문화는 결국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가 막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갈등조정 절차나 제도도 덩달아 취약해진다. 새로운 업무영역(법령 제정 등을 통한 영역 다툼 등) 선점을 위한 갈등이 발생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협업행정을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관리에는 조직, 인사, 예산, 법령, 문화 및 행태 등에 관한 다양한 관리가 내포된다. 하나의 관리만으로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전통적 관료제가 전문성과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반대로 현대의 수요엔 충족하지 못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수요나 정책문제가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현대 동태적인 조직환경에서 협업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정관리다.

성공적인 협업행정은 어떤 것일까? 협업과 관련한 저명한 연구자인 블릭스테드 등이 제시한 협업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들간 공유와 합의 ▶확실한 역할·책임·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정부구조, 의사결정의 공유, 전문기술의 분화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 ▶협력과정에 몰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협업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절차 ▶협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시골 목장에 있는 사일로(곡식저장창고)는 목가적이고 아름답다. 그러나 정부에 존재하는 사일로(각 부서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 좇는다는 의미의 경영학 용어)는 편협한 조직이기주의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이제 정부의 행정관리도 협업을 통해 칸막이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국민이 조화롭고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G

글·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를 기원합니다

– 축구인 6인의 응원메시지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하나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7 U-20 월드컵은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U-20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1983년 세계청소년대회의 영광을 2017년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얻길 바랍니다."
신연호 단국대 감독/1982 멕시코 U-20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연합

지난 7월 8일 터키 카이세리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한국의 이광훈이 동점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17 U-20 월드컵 유치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김태영 국가대표팀 수석코치

"2017 U-20 월드컵 대회 한국 유치를 기원합니다. 유소년 축구와 한국 축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이용수 KBS 해설위원/KFA 미래전략기획단장

"U-20 월드컵은 대한민국에서! 파이팅!"
윤덕여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017 U-20 월드컵 유치는 대한민국에서! 파이팅!"
이광종 U-22 대표팀 감독/2013 U-20 월드컵 8강 감독

2013 U-20 월드컵 **이광종** 감독에게 듣는다

"성실한 선수 뽑아 기본기부터 가르치자"

이광종(49)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한국 유소년 축구의 산증인이다. 지난 200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7월까지 터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표팀을 8강까지 올려놨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U-17 월드컵 8강, 2011년 콜롬비아 U-20 월드컵 16강, 지난해 AFC U-19 선수권대회 우승 등을 이끌었다.

이 감독이 좋은 성적을 냈던 U-20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월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의향서(Declaration of Interest)를 FIFA에 제출했다. FIFA U-20 월드컵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24개 국가의 축구 유망주가 참가해 '미니 월드컵'이라고 불린다. 디에고 마라도나(53)부터 리오넬 메시(26·이상 아르헨티나), 티에리 앙리(36·프랑스)까지 전설들이 뛴 무대다. 축구의 미래를 먼저 만날 수 있어 스타 등용문이라고 평가받는다.

올해 새로 취임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국제 축구 외교력 강화'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돕고 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유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부 승인을 내줬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역시 "유치 가능성이 높다"며 "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는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축구협회와 FIFA 지원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선수단 준비만 남았다. 2017년 대회는 1997년과 1998년생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다. 이 세대는 한국축구의 황금세대라 불린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FC 유스팀에 있는 백승호(16)가 1997년생이고, 이승우와 장결희(이상 15)는 1998년생이다.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명문 바르셀로나도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다.

축구협회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을 목표로 잡았다.

대한축구협회

이광종 감독은 유소년 선수 육성에서 인성을 강조한다.

2017 U-20 월드컵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광종 감독에게 남은 4년 동안 유소년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길을 물었다.

2017 U-20 월드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대회까지 4년 남았다. 지금 중학생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며 한국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었다. 조직력과 정신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다만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유소년 축구와 함께한 이광종 감독 프로필

- 1964년 경기 김포생
- 2000~2009년 KFA 유소년 전임지도자
- 2002~2003년 KFA U-15 대표팀 감독
- 2002~2005년 KFA U-20 대표팀 수석 코치
- 2004~2009년 유소년 전임지도자 팀장
- 2007 KFA U-18 대표팀 감독(한·일전)
- 2008~2009년 KFA U-17 대표팀 감독(U-17 월드컵 8강)
- 2009~2013년 KFA U-20 대표팀 감독
- 2011 U-20 월드컵 16강, 2012 AFC U-19 챔피언십 우승

것을 많이 느꼈다.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축구의 전체적인 토양에 문제가 있다."

어린 선수들의 재능은 어떤가. 예전 선수들에 비해 잘하는 것이 맞나.

"어릴 때부터 공 감각 등은 나쁘지 않다. 다만 유럽 연수 때 발렌시아 유소년들이 성인들이 쓰는 공으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을 봤다. 한국은 작은 공을 쓰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부터 바꿔야 한다. 자주 익혀야 더 발전한다. 예전에 비해 개인 훈련이 줄어든 것은 아쉽다. 팀에서 성적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력 훈련을 많이 한다. 어린 선수들 스스로 개인 훈련을 많이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

기본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축구협회의 국가 대표를 키우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다. 파주에 꾸준히 소집되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소집할 수 있는 선수는 많아야 20~30명이다. 한계가 있다. 한국 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 축구가 아직도 성적 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게 문제다. 선수 개개인의 기본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연령대의 선수를 다 지도해 봤는데,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연령별로 훈련 프로그램이나 훈련량을 조절하게 된다. 12세에서 15세까지가 유소년이다. 이때는 어린 선수들에게 재미난 방법으로 개인 기술을 가르쳐 준다. 청소년인 16~17세가 되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전술적인 것도 복잡해지고 유소년 때와는 달라진다."

기술은 다소 부족해도 꾸준히 성장한 선수가 있을 텐데, 소개해 달라.

"조원희(30·우한FC) 같은 경우 청소년 때 기술은 부족했다. 그러나 훈련 때와 실전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항상 열심히 했다. 그런 근성을 보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 예상대로 2006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나가는 등 성인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수 개개인의 장래성이 보인다고 할 때 대표팀을 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팀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력을 본다. 한마디로 성실성이다.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선수는 운동장에서 자신이 가진 기량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만족하는 선수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것도 선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들어간다."

인성이 기술에 앞선단 말인가.

"사람이란 것이 다 그렇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선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남을 배려하는 선수를 좋아한다. 그들은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한다.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준다. 어린 선수가 발전하려면 인성과 끈기·노력을 갖춰야 한다. 크게 성장하는 선수들은 이런 덕목을 꼭 갖췄다."

4년 뒤 뛸 선수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어린 선수들은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 또 주변 지도자의 도움도 필요하다. 현재 중학생들은 전술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익힐 시기다. 그런 능력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지난 U-20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류승우도 이전까지는 대표팀에 자주 발탁되지 못했다. 어릴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큰 대회에 나가면 자신감도 찾고 기량도 오르게 된다. 지금 대표팀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떨어졌다고 포기할 것도 없다." G

글·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축제'에서 한국 측 참가자들이 전통 악기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아부자 시민들이 한식 뷔페를 즐기고 있다.

한복을 입은 아부자 시민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아프리카에 울려 퍼진 한국의 맛과 멋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축제' 뜨거운 관심받아… 벨기에 아리랑 공연도 호평

"아부자에서 본 최고로 인상적인 공연이었어요. 환상적입니다!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꼭 열어주세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 시민 에스더 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낯선 한국인들에게 말했다. 11월 16~23일(이하 현지시간)까지 8일간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아부자에서 개최한 '한국문화축제(2013 Korean Culture Festival)'에는 나이지리아 시민과 외교관 1,300여 명이 참석해 풍성한 행사가 됐다.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한류소개 행사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맛과 멋으로의 초대(Invitation to Enjoy the Beauty and Flavors of Korea)'라는 테마로 현지인들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첫날 퓨전국악과 난타 공연을 본 참석자들은 함께 춤추고 열렬히 호응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나이지리아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공연단에게 학교를 방문해 공연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 소개된 불고기·비빔밥·갈비·잡채·김치 등 36종의 한식 뷔페와 인삼주·막걸리 등 한국 전통주에는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 "아부자에 한식당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불고기와 김치는 음식을 채워놓기가 바쁘게 소진될 만큼 최고 인기 음식이었다는 후문이다.

영화도 빼놓을 수 없었다. 행사 기간 아부자 실버버드 극장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영화인 〈영화는 영화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기담〉 〈복면달호〉 등 4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한국영화제가 열렸다. 3일간 600여 명이 관람해 모든 좌석을 가득 메울 만큼 인기였다.

나이지리아 국영방송 NTA TV와 〈가디안〉 〈디스데이〉 등 신문 매체들도 '한국문화축제' 특집기사를 잇따라 실으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럽에 울려 퍼진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공연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축제'가 끝난 사흘 뒤인 11월 26일. 이번에는 유럽 땅에 아리랑이 널리 울려 퍼졌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벨기에 한국문화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보자르센터(Palais des Beaux-Arts)에서 'Spirit of Korea, Song of Korea, ARIRANG'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는 벨기에 정부 및 EU 관계자들과 외교사절단, 현지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흥부가', '구음 시나위'와 국립무용단 이소정의 '살풀이 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자들을 사로잡았다.

또 벨기에 출신 한국계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얀센스와 거문고 연주자 최영훈 등이 '본조 아리랑'을 연주했다. 경기민요 소리꾼 강효주도 다른 연주자들과 상주·강원·밀양·진도아리랑 등 각 지방의 개성 있는 '아리랑'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한현경 사무관은 "아리랑은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며 "아리랑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넘어서서 세계인의 정서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2012. 12. 5)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글·이창균 기자

BBB코리아

BBB코리아는 라오스, 베트남에 이어 지난 10월 미얀마 양곤에 세번째 '한국어학당'을 개원했다. 이곳은 양곤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통역 자원봉사… 언어의 벽을 넘어요

BBB코리아 4,500여 자원봉사자들, 24시간 19개국 언어 통역봉사

정대현(40·직장인) 씨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적이 없다. 휴대폰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정 씨에겐 '휴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의 '재능'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정 씨는 언어·문화 봉사단체인 'BBB코리아'에서 3년 동안 베트남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24시간 내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통역 봉사는 24시간 봉사 대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을 떠올리면 '불법체류자'라는 편견이 심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역이 잘 돼서 무사히 입국하게 될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는 2008년부터 1년간 베트남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당시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정 씨는 한국에 돌아와 BBB코리아를 찾았다. 베트남인들에게서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BBB코리아에는 정 씨를 비롯한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이용자 수는 한 달 평균 6천여 명에 이른다. 영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일어 등 모두 19개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BBB코리아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출발한 단체다. 이 단체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에 가는 내국인들이 언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라오스에서 '한국어학당' 운영, 한글 직접 가르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40만~150만명에 이르면서 BBB코리아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출산이 임박한 몽골인 임산부가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있다. 그 임신부는 BBB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입원수속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출산을 했다.

최근 이 단체는 활동반경을 '통역 자원봉사'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확대하고 있다. BBB 코리아는 국내 민관기관 최초로 지난해 8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베트남 후에(HUE)에 세종학당을 추가 설립하고, 10월에 미얀마 양곤에 한국어학당을 추가하여 1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BBB코리아가 한국어 교육에 힘을 쓰게 된 것은 BBB코리아의 설립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BBB는 'Before Babel Brigade'의 약자로 비포 바벨(Before Babel)은 바벨탑 이전 시대를 일컫는 단어다. 그리고 브리게이드(Brigade)는 군대의 여단 혹은 단을 의미한다. 즉, 언어 불편이라는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이다. BBB코리아 관계자는 "한글을 통해 세계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BBB코리아는 앞으로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가면서 '한국어학당'도 지속적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G

글·김혜민 기자

BBB코리아 유장희 회장
"'언어문화 봉사단체' 모델 브라질에 수출할 계획"

BBB코리아 유장희 회장은 영어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 회장은 "휴대폰을 꺼놓지 말 것, 소리샘 연결하지 말 것, 전화벨이 울리면 즉시 받을 것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이 단체를 이끌어오고 있는 유 회장은 최근 '한국어학당'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했다.

유 회장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말한다"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어학당'을 꾸준히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한글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후에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는데 '한국어학당'이 생긴 이후로 한국어 전공자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현재 BBB코리아 '한국어학당'의 정원은 100명이다. 그러나 유 회장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BBB코리아는 '언어 문화 봉사' 모델을 브라질에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유 회장은 "우리 단체가 10년 넘게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게 알려지면서 브라질에서도 이 모델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BBB코리아는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한국어학당' 4호를 개원할 예정이다.

BBB코리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무선 전화에서

1. 국내에서 지역번호 없이 1588-5644, 해외에서 현지 국제전화코드 +82-2-818-1500
2. ARS 음성안내에 따라 요청 언어의 내선번호 선택
3. 해당 언어 봉사자 연결

BBB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BBB통역)-안드로이드/IOS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BBB 통역' 무료 다운로드
   *삼성 앱스,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
2. 통역연결 메뉴에 접속한 후 필요한 언어 클릭
3. 전화 걸기로 봉사자 바로 연결

유진희 제공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영미, 유진희, 김지원 씨와 지도교수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이형준 교수.

"시각장애인들도 세상과 쉽게 소통"

대학생 3인방,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 개발로 '대학창의발명대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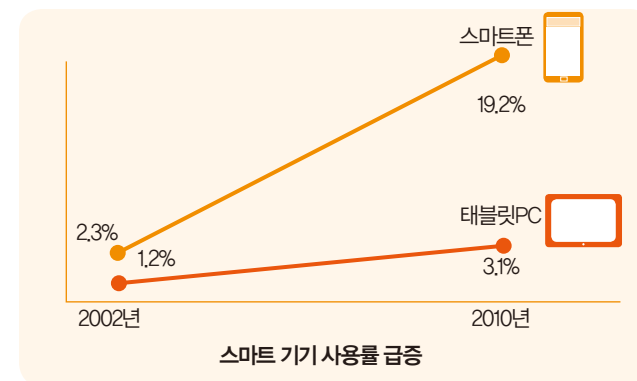
"스마트폰 키보드는 일반 사람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지난 11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으로 대상을 수상한 유진희(22·이화여대3) 씨의 말이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가 공동 주최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는 전국 94개 대학에서 3,442건의 발명품이 출품돼 경합을 벌인 끝에 유 씨를 포함한 김지원(21·이화여대3), 윤영미(23·한양대4) 씨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은 약 25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한 손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에 있던 시각장애인용 고가의 문자 입력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용성은 물론 창의성과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이 팀을 지도한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이형준(35) 교수 연구실에서 대상 수상자들을 만났다. 윤영미 씨는 해외에 나가 있는 관계로 이 교수와 유진희, 김지원 두 명의 수상자만 참석했다. 2012년 1월 삼성이 주최한 '소프트웨어 챌린지캠프'에서 같은 팀으로 만난 셋은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용 앱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한다.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음성을 이용하는 것과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단점이 있었다.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고, 모스 부호를 사용하려면 모스 부호를 직접 배워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유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스 부호를 몰라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자 체계를 통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대상팀 제공

"점자 체계만 알면 누구나 사용"… 키보드 체계 특허 출원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총 6개의 점으로 표현되는데, 이 6분할을 스마트기기에 그대로 구현해 바로 타이핑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기존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키보드를 일일이 외워서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어 준 것이다.

6개 분할면마다 '도레미파솔라'의 음을 넣어 어느 칸에 어떤 음이 나오는지 기억하게 해 놓았다. 철자가 틀리면 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글자를 모두 친 것을 문장으로 확인하려면 화면에 손가락을 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자신이 타이핑한 글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

이때 문자를 틀리게 입력하면, 왼쪽으로 드래그해 지우고 다시 타이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보내야 할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된다.

6개의 키보드로 모든 점자 표현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은 구글 플레이어 등에 올려진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을 깔면 별도의 아이콘 없이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6개 분할 키보드가 내장되는 시스템이다. 문자를 보낼 때 아래 부분을 터치하면(사진 왼쪽) 일반 스마트폰의 키보드가 아닌, 6개 분할 키보드(오른쪽)가 나오게 된다. 이 6개의 키보드로 모든 점자를 표현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수상팀은 6개 분할체계만 개발한 상태로 터치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다.

김 씨는 "어떤 스마트폰 사이즈라도 6개 칸으로 꽉 차게 분할되는 키보드 체계는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 씨의 꿈은 졸업 후 정부조직에 들어가 공공성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창의발명대회 같은 정부 주최 발명대회에 끊임없이 나가 실력을 쌓고 있다. 김 씨는 "통신회사나 반도체회사에 들어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나 엔젤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순수하게 평가해 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똑똑한 과학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G

글·박미숙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한눈에 파악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거치면 자세히 알 수 있어

www.sexoffender.go.kr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자) 1,675명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퍼센트가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4.4퍼센트)이 가장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궁금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살까?' 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8월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방치사건, 제주 올레길 성폭행 살해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파악은 더 중요한 일이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시로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실명인증만 거치면 이름과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도 검색과 조건 검색이 나온다. 지도 검색으로는 지도에서 시·도를 클릭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조건 검색은 각 읍·면·동 및 이름·학교 등 다양한 조건 내용을 입력해 성범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접 지도검색에서 ㅇㅇ시·군·구를 검색했더니 한눈에 읍·면·동별 성범죄자 숫자가 5명 이하는 초록색, 10명 이하는 파란색, 10명 초과는 빨간색 사람 모양으로 표시그림이 보였다. 그림을 클릭해 봤더니 성범죄자의 목록이 보이고 해당 성범죄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나이, 신체정보,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또한 ㅇㅇ시·군·구 지도검색 후 상단에 '성범죄자 주변학교 반경 1킬로미터'를 체크하고 성범죄자를 클릭했더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직접 기자가 사는 동네 인근 중학교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두 명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김종문 주무관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방문해 누구나 사전에 성범죄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미숙 기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

내년부터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모바일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열람서비스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여행을 하거나 다른 일로 이동했을 때 모바일 앱으로 검색하면 주변 거주지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

LX대한지적공사 전북시대 '활짝'

전주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 둥지… "공간 정보 메카로 제2의 출발"

LX공사

LX대한지적공사의 전주 사옥.

전라북도 혁신도시 구성도.

LX대한지적공사(이하 LX공사)가 전북시대를 열었다. 지난 11월 25일 전북 전주의 혁신도시 신사옥에 새 둥지를 튼 것. 서울 여의도 본사가 설립된 지 37년 만이다.

14개 모든 부서가 이전한 것은 공기업 중에서는 LX공사가 처음이다. 이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첫 입주 공기업이 됐다. 전국 186개 지사와 4천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LX공사의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다른 공공기관들의 전북혁신도시 이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전은 부서별로 날짜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위치한 LX공사 신청사는 부지면적 2만9,884평방미터, 연면적 1만3,832평방미터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다. 건물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고려해 설계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건물외벽은 자연채광을 극대화했다. 김태훈 LX공사 부사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모범적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며 "이전 초기의 어려움을 전 직원이 합심해 이겨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X공사 이전은 올 8월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채용의 기회도 확대됐다. 앞으로 신입사원 지원자 중 5퍼센트를 전북 출신 인재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무보조, 구내식당, 청소·경비 등의 인력도 지역 사람들 위주로 뽑을 예정이다.

LX공사는 11월 25일부터 전주 사옥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LX공사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국토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국토공간정보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3.0 실현을 위한 'LX3.0' 추진과제 실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표 사장은 "국토공간정보 산업에 전북의 문화예술을 융합시키겠다"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광주 무등산둘레길

기슭마다 전설 품은 산보다 더 푸근한 '무돌길'

광주의 진산(眞山) 무등산을 위시한 둘레길은 총 52킬로미터로 광주를 비롯해 담양, 화순을 시계 방향으로 순례한다. 무등산둘레길은 무돌길로 불린다. 무등산의 옛 이름으로 알려진 '무돌뫼'에서 따왔다고 한다. 만추의 서정이 가득한 지난 11월 둘째 주말 무돌길의 제1길 12킬로미터를 걸었다.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 줄 알아요?"

이날 기꺼이 무돌길 도반(道伴)을 자처한 광주 동구청 공보관실 김경대(43) 주무관이 제1길이 시작되는 각화중학교 뒤편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초입에서 대뜸 물었다.

"무등(無等), 산봉우리가 높고 낮음 없이 평평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아닌가요? 이성계가 붙였다던가…."

"이성계가 이름 붙인 건 남해 금산(錦山·681미터)일 테고, 무등산 이름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는데, 내 생각엔 무덤에서 유래한 게 아닐까 해요. 저 산을 보십시오. 무덤처럼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무덤산…그게 구전되면서 무등산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무덤처럼 덤덤한 산, 뾰족한 봉우리 없이 평평한 산. 내력이야 어찌되었든 무등산(1,187미터)은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한 느낌을 주는 산임에 분명하다.

10여 년 전에 만난 풍수학자 최창조 씨는 '지기(地氣)는 감응(感應)한다'는 그의 지론을 펼치면서 "야망이 있는 자, 권력을 좇는 자는 북한산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을 좋아하고 성정이 부드러운 사람은 산의 안부(鞍部)를 즐겨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등산의 지기와 잘 맞는 사람은 푸근함을 좇는 자일 것이다. 우리 둘은 서로 "내가 바로 저 산과 잘 맞는 자"라고 우기며 무돌길 초입에 들어섰다.

"최소 100년, 멀리 500년 이상 역사 지닌 길"

어머니 품 같은 무등산을 아우르는 무돌길은 산보다 더 안락하고 푸근하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샅길과 야트막한 고갯마루, 논두렁 밭두렁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돌길을 안내하는 무등산보호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무돌길은) 1910년대 지도를 기본으로 발굴 복원한 길로 최소 100년 이상, 멀리 보면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길"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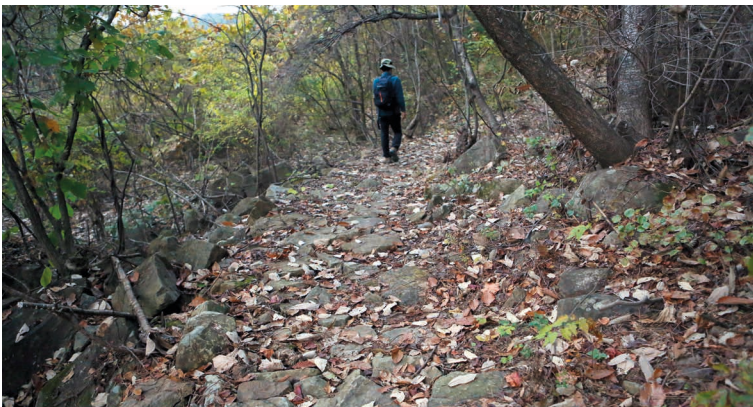
그러나 광주 사람 김 주무관은 겸손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봤을 때 번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무등산 등산로보다 무돌길이 훨씬 호젓하고 여유롭고 걷기 좋은 길임은 분명한데…. 하지만 서울에서 서너 시간 동안 차 타고 온 외지인에게 이름난 무등산이 아닌 무돌길로 들어서라고 추천해도 될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염려와는 달리 길은 좋았다. 무돌길 제1길에는 '싸릿길'이

1 무등산 정상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들산재를 내려가는 산행객이 보인다.
2 배재마을과 금곡마을을 잇는 고샅길. 아직까지 가을 정취가 물씬하다.
3 원효계곡 숲에서 뒤돌아본 무돌길. 구들장처럼 짜맞춘 돌길에 들어서면 아늑한 숲으로 간다.
4 무등산 정상을 볼 수 있는 들산재를 내려오면 청풍마을로 이어진다. 들판은 아직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무돌길 제1길이 시작되는 각화중학교에서 뒤편으로 올라가면 각화저수지가 보인다.

제1길 초입, 각화저수지를 지나 오른편으로 들어서면 들산재로 향하는 숲길이다. 아직까지 단풍이 남아 있다.

원효사로 들어가는 계곡. 길은 왼편 숲으로 이어진다.

제2길 등촌마을에 있는 민가 한 채.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마당을 들여다보니 '울안의집'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다.

라는 별명이 달렸는데, 싸리나무는 보이지 않고 한창 단풍이 무르익은 단풍나무와 소나무·상수리나무 잎이 길바닥을 덮고 있었다. 중학교 뒤편 도시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해 길에 들어서자마자 저수지가 나오고, 오른편 단풍나무 길로 들어서면 호젓한 숲길이다. 무돌길 이정표는 굵은 통나무 말뚝에 길의 이름과 거리만을 적었다. 다른 장식 없이 단출해 눈에 잘 띄었다. 선 굵은 무등산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산재는 야트막한 고갯마루다. 운동화를 신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큼 편한 길이었다. 주말 오후였지만 길을 다니는 이가 많지 않아 더욱 호젓했다. 고갯마루까지는 약 15분, 재에 올라서면 무등산 정상부의 세 봉우리인 천왕봉·지왕봉·인왕봉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좌우로 세 봉우리를 호위하는 중머리재와 장불재까지 훤히 보였다. 너그럽게 올라서는 무등산 골짜기, 부드러운 산 능선에는 아직도 단풍이 남아 있었다. 나무를 보고, 더불어 숲을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소였다.

들산재 오르면 무등산 봉우리 한눈에

들산재를 내려가면 계절별로 산골짜기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광주시 청풍동 신촌마을을 지나 등촌마을 정자를 만나게 된다.

"들산재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면 군왕봉(365미터)이에요. '군왕이 나올 만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군왕(君王)처럼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산은 아니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은 흔히 '큰 인물이 나오는 마을'이라 일컫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신촌마을은 고려 때 남평 문 씨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마을에 가면 균산정과 150년 된 우물, '청풍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균산정(筠山亭)은 1921년 청풍동 출신의 선비 문인환이 세웠으며, 2001년 후손들이 중수했다. 입구에 기와를 올린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는 22개의 판각(板刻)이 걸려 있다. 정자보다는 청풍막걸리가 이 마을의 명물이란다. 하지만 길을 시작한 지 채 한 시간도 안 된 시점부터 막걸리에 취해 걸을 수는 없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걸었다. 각화중에서 신촌마을까지 3킬로미터 구간, 여기가 제1길의 끝이다.

신촌마을에서 아스팔트 길을 건너면 등촌마을이다. 덕봉산(416미터) 등줄기에 앉아 있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마을 뒤편 고샅길이 끝나고 산길로 접어들려는 참에 아름다운 돌담길을 만났다.

돌담길을 끼고 산길로 접어들면 예전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 조릿대를 채취했다는 조릿대길을 만난다. 길 고갯마루에는 지릿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로 "뭣이 지릿지릿하다는 것일까"라고 농치며 걸었다. 허나 길 어디에도 지릿재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어 아쉬웠다.

재를 넘어오면 배재마을에 이른다. 배재마을 뒤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정자에 닿는다. 배재는 '백토재'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도자기 원료가 되는 백토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마을 지형이 베를 짜는 바디 형국이라서 배재라는 설도 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있는 정자는 제2길의 종점이며, 제3길의 시작이다. 신촌마을에서 이곳까지 약 2킬로미터, 반시간 남짓 걸렸다.

금곡마을은 제4길의 시작점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교차로에 작은 장터가 열렸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와 고추 등 농산물을 들고 나왔다. 해질녘이 다 됐지만, 아직 장을 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 얼마 못 판 게 분명했다.

교차로를 지나 무등산 방면으로 들어서면 무돌길이 이어진다. 이 지점부터는 담양군 행정구역이다. 고샅길이 끊어질 때쯤 원효계곡 숲길로 안내하는 무돌길 이정표가 보였다. 직진하면 원효사, 뒤편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보였다.

원효계곡 길바닥은 구들장을 꿰맞춘 듯 이어져

원효계곡 길은 이날 걸어본 제1~4길 중에서 가장 좋았다. 바닥은 구들장을 꿰맞춘 것처럼 바윗길이 이어졌다. 아마도 옛길을 재정비해 놓은 듯했다. 돌바닥은 상수리나무와 단풍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더 좋았다. 흙냄새를 토해 내는 촉촉한 낙엽이 발부리에 차이는 느낌도 좋았다. 낙엽 쌓인 돌길은 10여 분 정도 이어졌다.

길은 원효계곡 하류 풍암천을 따라 평촌마을로 들어섰다. 아스팔트 길을 300미터 정도 내려가니 '무돌길쉼터'가 보였다. 길동무가 "이 지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막걸리 한잔 하기에 좋다"고 해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쉼터는 정비 중이었다.

계곡을 따라 금산교를 건너 담안마을로 들어서면 아름드리 정자가 길손을 맞이한다. 담안마을은 닭뫼, 동림, 우성마을과 함께 평촌마을이라고 불린다. 이 마을 다리를 건너 우성마을을 지나면 중앙천이 흐르는 남면 반석마을을 거쳐 산음교에 이른다. 산음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서 깊은 소쇄원이다.

배재마을 정자에서 시작하는 제3~4길 구간을 합쳐 약 6.5킬로미터,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 총 11.5킬로미터, 오후 3시에 시작한 길은 6시경에 끝났다. 한나절가량, 너그러운 무등산의 풍취와 산기슭에 얽힌 전설을 따라 걷기에 좋은 길이다. G

글과 사진·김영주(여행 칼럼니스트)

여행수첩

가볼 만한 곳

충장사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사당. 유물관에는 중요 민속자료 제111호로 지정된 충장공 김덕령 장군 의복과 묘에서 출토된 친필 등이 전시돼 있다. 사당 뒤쪽에 묘와 묘비가 있으며 가족묘도 조성돼 있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때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선조 28년(1596년) 적장과 내통한다는 무고로 체포돼 옥에서 죽음을 당했다. 영조 때 병조판서로 추증됐다. 광주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187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

무돌길 전 구간을 거점별로 도는 무등산순화버스가 1일 6회 운행된다. 광주역을 출발해 광주교대→각화중→충장사→소쇄원→담양남면사무소→화순이서초교→안양산휴양림→증심사주차장 조대정문을 거쳐 다시 광주역으로 회귀한다. 무돌길 전 구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운행하기 때문에 광주, 담양, 화순 어느 구간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 · 9시30분 · 10시, 오후 1시 · 1시30분 · 2시30분이다.

문의 ☎ 062-528-1187(www.mudeungsan.org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제4길의 종점 부근인 무돌길쉼터에서 225번 버스를 탈 수 있다. 막차가 오후 8시까지 있으나 1시간에 1대꼴로 운행한다. 버스가 끊기면 인근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광주 시내까지 요금은 약 2만원이다.

도루묵의 계절 "일단 잡숴봐요~"

중앙포토

도루묵은 억울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 입을 즐겁게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름을 가지고 끝도 없이 조롱을 해 대니 말이다. 자신이 붙여달라고 해 본 적도 없는 호칭을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줬다 뺐다 하고…. 또 그 사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인간들이 원망스럽다.

도루묵이라는 명칭에 관해 가장 흔하게 회자되는 이야기는 '선조 명명설'이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함경도에 피난 갔을 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자 현지의 어부가 묵이라는 생선을 요리해서 바쳤는데, 생선맛이 너무 좋다며 선조는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환궁한 선조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청해 먹었으나 그 맛이 실망스럽자 도로 묵이라 하라고 해서 호칭이 '도루묵'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그런데 정사에 의하면 선조가 함경도로 피난 간 적이 없다니 이 설은 좀 수상쩍다.

다른 주장으로는 '이괄의 난' 때 인조가 공주로 피신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설도 있다. 이 고담들이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그 무렵의 인물로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이식은 자신의 문집인 〈택당집(澤堂集)〉에 '환목어(還目魚)'라는 시를 남겼는데,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 줄거리가 도루묵의 설화에 관한 것이다. 그 중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마침 목어가 수라상에 올라와서(目也適登盤) / 허기진 배 든든하게 채워 드리자(頓頓療晩飢) / 은어라는 이름을 특별히 하사하시고(勅賜銀魚號) / 두고두고 바치도록 하명을 하셨다네(永充壤奠儀)"

라고 했고, 궁에서 다시 먹어본 후에는

"바로 이름을 박탈당해 도로 목어로 떨어지고(削號還爲目) / 순식간에 버린 자식 취급받게 되었다네(斯須忽如遺)"

라 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식은 피난 갔던 임금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옛 임금이라고만 했다.

같은 시기의 인물인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처음 이름은 목어였는데 고려 때 좋아하는 임금이 있어 은어라고 고쳤다가 많이 먹어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고쳤다 하여 환목어(還木魚)라 한다"며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출간된 〈고금석림(古今釋林)〉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고려 임금의 일화로 소개되어 있다. 어느 임금의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고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간사한 심사를 풍자하고 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은 애쓰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을 속되게 표현하는 관용구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 개명해 보겠다는 엄두조차 내 본 일이 없는 도루묵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맛이 없다는 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루묵은 맛있다. 비늘이 없는 도루묵은 살이 부드럽고 맛이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다. 특히 알이 가득 차는 11~12월 초에 가장 맛이 좋은데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싸인 탱탱한 알을 입 속에서 톡톡 터뜨리며 먹는 맛은 자별하다. 임금이 맛이 없다고 한 것은 미각이 발달해 있지 않았거나 요리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루묵은 찌개나 조림도 훌륭하지만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석쇠에 구워먹는 맛이 일품이다. 토막 친 도루묵을 넣고 담근 깍두기나 배추김치는 별미 중의 별미이며 도루묵식해도 빼놓을 수 없는 맛이다.

동해안에 도루묵이 풍어라고 한다. 어획량이 많아 가격이 싸져서 어민들 사이에 '도루묵 잡아봤자 말짱 도루묵'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다 돌 정도라고 한다. 수산시장에서 도루묵 한 상자 사다 지져먹고 구워먹고 김장에도 넣으면 진미도 즐기고 어민들도 돕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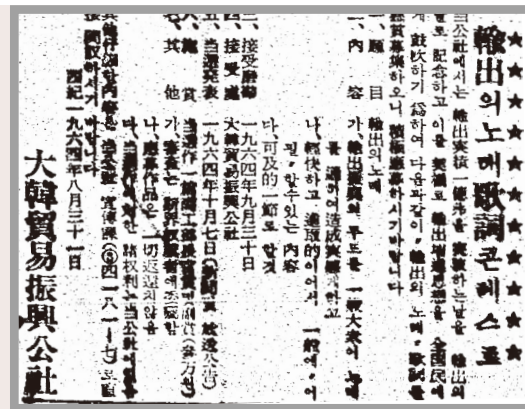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수출의 노래'도 있었나?

★★★★★★★★★★★

輸出의 노래 歌詞 콘테스트

大韓貿易振興公社

西紀一九六四年八月三十一日

1964년 9월 1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대한무역진흥공사(현 KOTRA)의 광고 '수출의 노래' 편.

"輸出의 노래" 歌詞 콘테스트 審査發表

去般 當公社에서 懸賞募集한 "輸出의 노래" 歌詞의 審査結果를 다음과 같이 發表합니다。

一、當選作 該當없음

二、佳作 서울特別市西大門區碌磻洞二九의四 金大植

三、內容

知慧와 땀방울 함께 쏟아서

모두가 뛰어난 우리 製品들

만들자、보내자、벌어 들이자

繁榮에의 외길은 輸出뿐이다。

(후렴)

일터마다 거리마다 넘치는 活氣

늘어가는 輸出에 커가는 나라

四、入選者는 十月十二日午前十時까지 當公社宣傳課로 出頭하시기 바랍니다。

西紀一九六四年十月 日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四街四六

大韓貿易振興公社

1964년 10월 8일 경향신문에 실린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 심사 발표' 광고.

세계경제 예측치를 보면 L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브릭스(BRICs :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5국) 같은 나라에서도 저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맞물려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경제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이나 수출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출범해 대강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의 광고 '수출의 노래' 편(한국일보 1964년 9월 1일)을 보자. 비주얼 없이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라는 헤드라인 등 모든 메시지를 카피로만 구성했다. "수출 실적 1억불을 돌파하는 날을 수출의 날로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수출 증진 사상을 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해 수출의 날 가사를 현상 모집하니 적극 응모하라"는 내용이다.

주문한 가사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수출 진흥의 무드를 일반 대중이 노래를 통하여 조성 실감케 하고 둘째, 경쾌하고 진취적이어서 일반에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셋째, 가급적 일절(一節)로 작사하라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무드'나 '어필' 같은 영어를 썼다는 점에서 이 광고 카피는 당시에 영어 좀 하는 어떤 직원이 썼으리라. 특히 수출 증진을 '사상'이라고까지 강조한 데서 지나친 계몽성을 엿볼 수 있다.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 심사 발표'(경향신문 1964년 10월 8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고일보다 하루 늦었다. 당선작 없이 가작(김대식 씨)만 선정했는데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혜와 땀방울 함께 쏟아서 / 모두가 뛰어난 우리 제품들 / 만들자, 보내자, 벌어들이자 / 번영에의 외길은 수출뿐이다. / (후렴) 일터마다 거리마다 넘치는 활기 / 늘어가는 수출에 커가는 나라."

이 정도의 가사라면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도 있었으련만 심사위원들은 더 계몽적인 내용을 기대했거나, 수출 의지를 더욱 고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번영에의 외길은 수출'이라거나 '늘어가는 수출에 커가는 나라'라는 대목에서, 수출을 전 국민의 의식화 운동으로 전개하려 했다는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입선자에게 마치 검찰에 출두하라는 듯이 "10월 12일 오전 10시까지 당 공사 선전과로 출두(出頭)"하라고 공지했다. 여기에서 그 무렵엔 관(官)이 위고 민(民)이 아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뿌리를 박고 지금까지 달려온 KOTRA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가사 공모 50주년을 맞이해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를 다시 해 보면 어떨까. 계몽성을 배제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G

글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여름밤의 꿈'에도 나오는 오디

동서양 실생활과 문화 속에 뿌리내린 뽕나무와 그 열매 오디.

어릴 때 읽은 동화책에 〈나무노래〉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무나무 무슨 나무, 너랑나랑 살구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십 리 가도 오리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푸르러도 단풍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방귀 꼈다 뽕나무…."

저의 나무 이야기는 바로 이 방귀 뀌는 뽕나무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뽕나무만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나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뽕잎은 누에의 먹이로, 열매인 오디는 영양가 높은 먹거리로, 또한 뿌리는 한약재로 두루 쓴다고 하니까요. 뽕나무는 원래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이지만, 주변에서 뽕나무 거목을 잘 볼 수 없는 것은 누에 먹이로 잎을 해마다 따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강원도 정선군청 앞에는 드물게 나이를 600살이나 먹은 뽕나무 거목이 두 그루 있답니다. 혹시 정선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뽕나무는 대부분 산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는 뽕나무보다 잎이 약간 작고 끝이 뾰족하며 열매의 크기도 작은데, 뽕나무류의 열매를 통틀어서 오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 말고도 우리 산하에는 돌뽕나무와 몽고뽕나무라는 유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만,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뽕나무라는 식물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실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부터 뽕나무와 관련한 문헌 기록이 많이 보입니다. 임경빈 박사의 〈나무백과〉(일지사, 1977)라는 책 속에도 뽕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지명(地名)의 유래가 나오네요.

"서울의 남산은 생김새가 누에를 닮아 잠두봉(蠶頭峯)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풍수 이론에 따라 서울의 정기를 돋우려면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가 많아야 되므로 서울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 지금의 잠실(蠶室)은 원래 뽕나무가 많았던 동네인 것이다."

비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천금의 가치를 지닌 귀중품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누에나방의 애벌레인 누에가 고치를 짓기 위해 체내에서 뽑는 섬세한 실로 짠 천이 바로 비단입니다. 따라서 비단을 짜려면 누에를 키워야 하는데 누에의 먹이가 다름 아닌 뽕잎이랍니다. 뽕나무를 사용한 누에 사육법은 5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양에까지 전파되지만, 서양 역시 그 이전에도 뽕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령 뽕나무는 봄이 완연해서야 비로소 잎을 내는 모습이 현명하다고 여겨진지라 고대에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에게 바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뽕나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일화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드(Ovid)의 시집 〈변신〉에 나오는 티스베(Thisbe)와 피라무스(Pyramus)의 슬픈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비극적인 전설을 〈로미오와 줄리엣〉의 처절한 최후 장면에 그대로 차용하였답니다. 티스베와 피라무스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도 또다시 극중극(劇中劇) 형태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한여름밤의 꿈〉에도 뽕나무가 보입니다.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는 남편 오베론의 농간으로 마법에 걸린 탓에 당나귀 머리를 한 기괴한 몰골의 사내(Nick Bottom)에게 반해 버리게 되는데, 사랑에 눈이 먼 여왕은 부하 요정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리죠.

"이 신사분께 상냥하고 공손하게 대하거라. / 걸어가시는 앞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뛰놀거라. / 이분께 살구와 나무딸기, 잘 익은 포도와 푸른 무화과, / 그리고 오디를 따서 대접하거라."(3막 3장)

서양에서도 뽕나무의 오디는 요정들이 즐기던 진귀한 별미였나 봅니다. G

글과 사진 · 김태영(자연생태연구가, 〈한국의 나무〉 공저자)

품격높은 '왕실문화의 보고'

프랑스에서 귀환이 완료된 이후 처음 실물이 공개된 외규장각 의궤류 중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 · 1688년).

1782년 2월 강화도에 외규장각 건립을 완료했다는 강화유수의 보고가 올라왔다. 정조가 즉위 직후 외규장각 건립을 명한 지 6년 만이었다. 외규장각 건립을 계기로 왕실의 자료들을 비롯하여 주요한 서적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되었다. 이후 100여 년간 외규장각은 조선 후기 왕실문화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게 되었다.

1784년에 편찬된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의 규모로 행궁(行宮)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은 인조 이래 강화도에 행궁과 전각이 세워지고 왕실관계 자료들이 별고(別庫)에 보관된 것을 계기로, 국방상 안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창덕궁에 위치하면서 조선 후기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곳을 '규장외각' 또는 '외규장각'이라 부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외규장각이 완성되자 정조는 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왕실 도서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이곳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정조의 뜻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어 1866년 병인양요로 외규장각이 수난을 당할 때까지 6천여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병인양요 전인 1857년과 1858년에 작성된 〈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에 따르면 당시 외규장각에는 어람용 의궤류를 비롯하여 총 6천여 권의 서책이 동서남북의 탁자에 보관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외규장각에 보관된 기록물 중에는 왕이 친히 열람할 목적으로 작성한 어람용(御覽用) 의궤(儀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 일반 사고(史庫)에 보관하는 분상용 의궤와는 별도로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를 따로 제작하였다. 어람용 의궤는 표지와 장정이 분상용 의궤보다 화려하였고, 종이의 재료도 초주지를 사용하여 분상용 의궤에 비해 질이 좋았다.

표지는 초록 비단을 사용하여 붉은 삼베 표지인 분상용 의궤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장정(裝幀)을 함에 있어서도 어람용 의궤는 국화 모양의 장식 5개를 만들어서, 박을정(朴乙丁) 3개를 써서 장정을 한 분상용 의궤보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어람용 의궤에 수록된 글씨와 그림 또한 우수했다. 같은 의식을 기록한 의궤를 비교해 보면 어람용 의궤의 '반차도' 그림이 훨씬 정밀하여 인물의 수염이나 눈매까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나 장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1866년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군대의 눈도 사로잡을 수 있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조선의 강화도에 쳐들어오면서 병인양요가 시작되었다. 국토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최고의 문화재인 외규장각 의궤를 집중 약탈해 갔다. 프랑스 군대는 6천여 권의 왕실 도서가 보관되어 있던 규장각을 방화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에도 의궤들은 프랑스로 가는 배에 실었다. 화려하고 품격이 있는 외규장각 의궤의 장정과 비단표지, 반차도 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후 의궤 목록만 존재했지 그 실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의궤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75년 외규장각 의궤의 소재가 확인되었다. 박병선 박사는 의궤의 목록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고, 이것은 이후 의궤 반환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1991년 서울대학교는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의궤 297책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199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휘경원원소도감의궤〉 2권의 책을 들고 국내를 방문했다. 고속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

외규장각 의궤는 반환 이후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조가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최고의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려고 한 깊은 뜻을 우리 후손들이 계승하는 길일 것이다. G

글 ·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약탈 문화재의 기구한 운명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김경임 지음
산처럼 · 2만2천원

"바위틈에 서까래를 얹고, 골짜기를 파서 집을 지었다더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곳은 정녕 도원이로다!"

안평대군이 도원을 거니는 꿈을 기록한 〈몽유도원기〉의 일부다. 조선 전기 회화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몽유도원도〉의 기록판이다. 그림과 글은 절묘하게 어우러져 상상력을 자극한다.

〈몽유도원도〉는 1447년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다. 하지만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안평대군의 희생과 함께 사라진 뒤 1950년 덴리(天理) 대학이 소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책은 이 유명한 서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유랑했는지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안평대군은 어린 나이에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됐다. 세종의 아들이었지만 숙부(태종의 넷째 아들 성녕대군)의 후사가 되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고 많은 문객을 거느리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안평대군은 자신이 도원의 꿈을 꾼 것에 대해 운명적이라 여겼다. "아마도 저의 천성이 그윽한 것을 좋아하고 산수를 즐기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사는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안평대군은 세종조 최고의 문사들을 초청해 그림에 대한 찬문을 짓게 했다. 23명의 학자들이 쓴 찬문들에는 〈몽유도원도〉에 대한 돋보이는 해석과 예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몽유도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 때문이다. 안평대군은 36세에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교동도에서 죽음을 맞는다. 특히 서재가 있던 비해당의 1만권에 달하는 서책과 고서화는 모두 불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대형 서화인 〈몽유도원도〉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온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건 그래서 의아한 일이다.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그림은 이후 일본을 전전했다. 그러다 1928~29년 무렵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다. 교토대학교 나이토 교수가 〈조선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역사 속에 묻힌 지 400여 년 만이었다.

1931년 일제강점기, 〈몽유도원도〉는 도쿄부 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 전시에서 〈몽유도원도〉는 조선 최고의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가장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을 대표해 출품됐다는 사실은 한국 역사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1927년 세계 공황 때 사업가의 담보로 넘어가며 소유주가 바뀌었던 그림은 여러 거처를 전전한 끝에 오늘날 덴리대학교 도서관에 도착했다. 격정의 유랑에 잠시 쉼표를 찍은 셈이다. 〈몽유도원도〉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직업외교관이었던 저자는 일본이 약탈해 간 〈몽유도원도〉의 존재를 알려 문화재 반환에 영향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가 정확한 문헌을 통해서 그림의 소유 이전을 추적하고 경위를 소상히 기록한 것은 큰 강점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에 불을 지피는 책이다.

글 · 박지현 기자

새로 나온 책

테크노 인문학

이진우 지음
책세상 · 1만7천원

인문학과 과학기술, 융합적 사유의 힘을 다뤘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된 오늘날 인문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접목한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시도한다.

붉은 실 생각법

데브라 카예 지음
다른세상 · 1만4,800원

브랜드 혁신 및 트렌드 전문가인 저자가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을 이어주는 월하노인의 붉은 실 이야기'에 착안해 쓴 책이다. '붉은 실 생각법'은 연관능력이다. 아이디어란 주변에 흩어진 수많은 실 가닥들을 독창적으로 엮어낸 결과물이다. 관찰과 경험, 이미 존재하는 기술, 숨겨진 문화와 소비자의 욕구 등이 예상치 못하게 연결되면서 최상의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게으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벌

글과 그림 · 최영순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 토머스 에디슨(미국의 발명가)

오드리 헵번 등 명사들의 점프 사진을 전시한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가 내년 2월 2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세기의 인물들 "뛰어보자, 팔짝"

〈점핑 위드 러브展〉

세계적인 명사들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점프 샷'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내년 2월 2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점프 샷'은 피사체가 뛰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이번 전시회는 '점프 샷'으로 유명한 사진가 필립 할스먼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필립 할스먼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 표지에 101회의 작품을 실은 작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200여 점이 국내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객들은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알프레드 히치콕 등 세계적인 명사들의 '점프 샷'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전시회는 '점핑(Jumping)' '드리밍(Dreaming)' '러브(Love)'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점핑' 섹션에서는 점핑하는 인물들의 자세로 보는 그들의 심리적 초상을 살펴본다. 각자의 표정과 자세로 뛰어오르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은 진정한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드리밍' 섹션에서는 1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땀방울이 느껴지는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러브' 섹션에서는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먼로 등 아름다움과 로망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세 여배우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유명 인사들의 '점프 샷' 외에 이들을 둘러싼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필립 할스먼은 사진을 통해 인물들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모든 사진에는 사진 속 인물이 전하는 메시지와 사진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곁들여져 있다. G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2013년 12월 3일~2014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 **문의** ☎02-532-4407

공연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잘 풀어낸 작품이 마련됐다. 이 연극은 비행 청소년인 주인공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공연은 정체성 혼란, 학교폭력, 이성교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다룬다. 나아가 청소년 시기에는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기간 12월 12일까지

장소 서울 성북구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문의 ☎02-765-8880

기발한 송년 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의 제15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성악가, 지휘자, 작곡가로 국제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정용선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관객들은 독일 음악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진행된다. 루마니아 북동쪽의 작은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의 국립방송교향악단은 깊이 있는 음색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시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45

가장 맛있는 김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할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장김치 드셔 보시래요."

창의적 사고의 산실, 워크숍

직장이나 학교에서 "워크숍 하자"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워크숍은 본래 '상호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다.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문예, 연극, 영화, 방송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워크숍이 진행된다.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워크숍의 의미는 본래 뜻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 몇몇 워크숍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엉성한 원고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 토론한 뒤 학술 행사를 빙자해 관련 인사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워크숍을 소진한다.

워크숍은 본래 창의적인 활동의 현장으로 작업자들의 작업장 혹은 장인들의 공방을 의미했다. 워크숍은 스튜디오, 실험실, 공장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작품 활동에 매진하거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엔지니어들이 작업장에서 새로운 기계 설비를 고안하는 일은 모두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워크숍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중앙포토

문제해결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한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 현장.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도 어려서부터 작업실에서 실험기구를 제작하는 훈련을 받았다. 1736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조선소 마을인 그리녹에서 태어난 제임스 와트는 1754년부터 인근의 대도시인 글래스고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실험장치, 악기, 측량기구를 만드는 도제 훈련을 받았다. 1757년부터 와트는 글래스고 칼리지에 작은 워크숍을 차려놓고 실험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글래스고 칼리지에서 데모 장비를 개발하던 와트는 마침내 1712년 뉴커먼이 발명한 대기압 기관도 교육용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뉴커먼의 대기압 증기기관은 제작비는 쌌지만 석탄과 물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결점이 있었다.

제임스 와트는 이 뉴커먼 기관을 개량해서 1765년 산업혁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완벽한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그는 실린더의 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속의 증기만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분리형 응축기를 고안해 특허를 받았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연료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공장 입지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을 이끈 위대한 발명도 창의적 사고의 산실인 워크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워크숍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인 문제해결 능력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모임이다. 워크숍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집단 창조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워크숍을 형식적이고 소모적으로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안타깝다. 워크숍 본래 의미를 찾아 창의적 사고의 산실로 키워 창조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봄은 어떠한가. G

글 · 임경순(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과학사 교수)